



성도의벗 11

1972



영감의 메시지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뒤로 미루는 버릇은 복음의 원리에 입각하여 볼 때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서의 삶인 영생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교회의 회원까지도 복음의 원리를 지키는 일에서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에 젖기는 쉬워도 헤어나기는 힘든 법입니다. 나쁜 습관이라 하여도 빛이 아니고 죽으면 결국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호락호락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은 무덤에서 깨끗하게 정리되어 부활할 때에는 완전하고 성스럽게 된 육체로 다시 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는 육신은 무덤 속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로 그러한 악습을 합리화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마는 이와는 다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코리 안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게 이야기한 회복의 원리가 너를 죄에서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다. 정녕 네가 행한대로 네게로 돌아와 회복되리니, 회복은 죄인을 더욱 정죄할 것이요, 결코 죄를 정당하다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알 41:10, 15.)

우리는 절대로 앤마의 권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라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이 생애의 나날은 사람들이 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라.” (알 34:32)

주님은 언제나 자비롭고 친절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그분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교성 88:63)

순서

해롤드 비이 리장로 11대 대관장에 성임되다	2
조셉 필딩 스미스 사도 예언자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6
조화의 영이 것들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는 값없이 받았으니 또한 값없이 나누어 주라	
네 형제를 굳게하라	
아일랜드에 있는 친구들	
초라한 막사	
니파이의 아들 니파이	
우리도 그분처럼 될 수 있다	
질의 응답	
어릴때 주님을 섬긴것에 관한 경전 이야기	
언젠가 완성될 왕국	
온 백성이 알리는 우리의 증언	
평안	
윌포드 우드립: 신앙과 열정의 인간	
선교부장단 메시지	
내외소식	

47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 1972년 11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 81 호
편집결 발행인 : 엘 에드워드 부라운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1409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이달에는 스미스 대관장님의 서거와 11대 대관장으로 성임되신 리 대관장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싣고 있습니다. 또한 1971년 10월에 있었던 총회에서 행하신 스미스 대관장님의 말씀도 함께 실립니다. 그의 서거를 추도하는 뜻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실는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972년 11월호

제 8 권 제 11 호

- 대관장단
해롤드 비이 리
엔 엘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 십이 사도
스펜서 더불류 킴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멜버트 엘 스태플리
리그랜드 리 차즈
휴 비이 부라운
하우워드 더불류 헌터
골든 비이 힙크리
토마스 애스 문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맬빈 제이 애쉬톤
부르스 아아르 멕콩키

정 가 : 1 권 100 원
1년분(송료포함) 국내 800 원
국외 선박 5 불
항공 7 불

성도의 벚이 배달되는 여러분의 지부나 주소
가 변경될 때는 빠른 시일내에 번역 출판부 성
도의 벚 편집실로 알려주시어 성도의 벚 발송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2년 11월호

해롤드 비이 리 대관장



해롤드 비이 리 장로 11대 대관장에 임명된다.

1972년 7월 7일 금요일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쾌청한 여름날 아침 솔트 레이크 신전의 성스러운 방에서 해롤드 비이 리 대관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동료 사도들의 손으로 교회의 제11대 대관장이며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 왕국의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성임, 성별된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월 2일 일요일 아침 9시 25분 죄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이 돌아가신지 닷새만에 취해진 것이다. 스미스 대관장의 장례식은 7월 6일 목요일 솔트 레이크 태버나클에서 거행되었으며 유해는 솔트 레이크 묘지에 안장되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대관장이 돌아가신 후 교회의

운영 기구가 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대관장단의 재 조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신전에 모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선임 순위에 따라 정원회 회장의 직을 맡아 온 리 장로는 스페서 더블류 킴볼 장로의 안수로 성임, 성별되었다. 킴볼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선임 순위에 따라 정원회 회장이 되었다.

리 대관장은 성임을 받은 즉시 엔 엘든 태너 장로를 제1보좌로, 킴볼 장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성별했다.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십이사도 정원회의 결원이 한 사람 생기게 되었는데 이는 10월 대회에서 충원될 것으로 믿어진다.

이날 행사를 마친 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관장이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회원에게 주어야 하는 가장 위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교회의 안전과 개인의 안전이 것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읍니다.”

오늘날의 세상 상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리 대관장은 140년 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알려주신 바 지상에 평화가 없어지며 사탄이 통치 능력을 갖게 되리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140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세상의 악과 대처하여 나갈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가 품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세상에 만연하는 악과 부정,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사용하라고 마련해 주신 무기입니다.”

앞으로 타개해야 할 난관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교회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져야 할 가장 큰 과제라는 점을 알아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읍니



다. 교회의 팽창과 보조를 맞추어 어느 곳에 있든지 회원 모두가 합당한 보호, 가르침, 인도를 받는가를 살피는 일이 우리가 담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의 은혜로 우리는 기초를 놓으라는 지시를 받았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그 기초위에 무엇인가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관장은 교회를 인도하는 분은 오로지 주님임을 시사하여 주는 성구를 인용하셨다. “이때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쳐 알아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나아갔느니라.” (니일 4 : 6)

리 대관장은 보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에게는 보좌를 지명할 책임이 있읍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으로서 총관리 역원을 조직하고 있읍니다. 그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주님의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느냐를 아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고, 저는 이점에 제 자신을 다 바쳤읍니다. 저는 저의 보좌로

매리 온 지 룬니 부대관장



부름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간의 뜻이나 사람의 선택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영의 지시와 인도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렇기에 그분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신임 대관장단은 국제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다. 리 대관장은 미국에서 출생, 성장했고, 태너 부대관장은 미국에서 출생했지만 대부분의 생애를 캐나다에서 보냈으며, 룬니 부대관장은 멕시코에서 출생, 성장한 분이다. 이외에도 태너 부대관장은 이번의 부름으로 데이비드 오우 벡케이, 죄셉 필딩 스미스, 해롤드 비이 리 대관장 등 3대 대관장의 보좌로 봉직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 경륜의 시대에 제11대 대관장으로 부름을 받은 리 대관장은 1899년 3월 28일 아이오하주 클리프تون에서 출생, 농장에서 성장했다.

17세의 나이로 학교 교장의 직을 맡을 때부터 1941년 4월 6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리 대관장은 교육자요(아이오하주, 유타주에서 교장을 지냄) 선교사요, (미국의 서부 각주) 사업가요, 관리(솔트 레이크시 지방 행정관)였다.

1932년 파이오니어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대관장은 스테이크의 실업자와 구호 대상자를 돋기 위한 감독의 창고를 마련하였다. 1936년 교회가 이러한 복지 프로그램을 교회 전반에 걸친 계획으로 채택하였을 때 대관장은 초대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분은 22년간을 이 직책에 봉직하였다.

총관리 역원으로서 리 대관장은 많은 교회 본부 위원회 및 보조 조직을 관리하고 지도하였다. 근래에는 주로 교회의 교수 및 관리 계획을 협의하는 프로그램의 조직, 발전을 관장하는 협의 집행 위원회와 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1970년 1월 23일 이후로는 대관장단의 제1보좌의 직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직을 겸직하여 왔다. 그분은 이같은 경험을 통하여 이제 부름을 받은 직책 수행에 필요한 지도 역량을 다져 왔던 것이다.

태너 부대관장은 1960년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을 받으면서 일반 회원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1962년에는 십이사도로, 그 이듬해에는 데이비드 오우 벡케이 대관장의 제2보좌로 부름을 받았고, 죄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관리 시기에도 역시 같은 직으로 일한 바 있다.

1898년 5월 9일 출생한 태너 부대관장은 농장에서 커고 아주 어렸을 때 이미 교육자가 되어 있었다. 후에 공직에 몸을 담아 앤버타 주의원으로 선출되어 대변인으로 활약하였다. 그후로 그는 주내각의 일원으로, 토지 광산과의 장으로 봉사하다가 개인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가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방대한 캐나다 파이프 회사의 총수이며 동시에 캘거리 스테이크 부장으로 일할 때였다.

1970년에 쓰여진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의 관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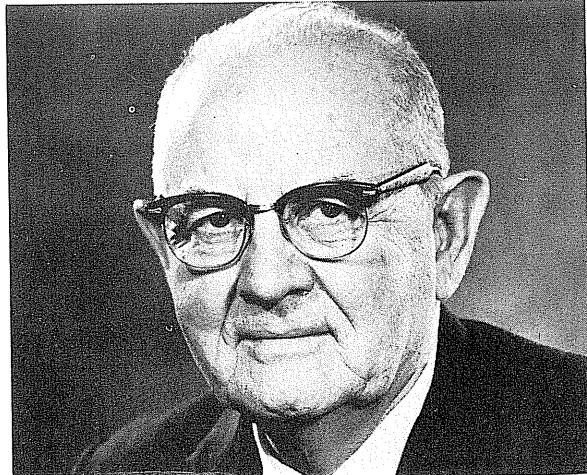
대한 통찰력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교회에 친구를 얻어 준 공정성, 고결성, 너그러움등의 위대한 특성과 함께 대관장단에서 십분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라지, 1970년 2월호 3페이지)

롭니 부대관장은 1941년 4월 6일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을 받으면서 총관리 역원이 되었다. 그는 1951년 10월에 사도로 지명을 받았다.

그는 1897년 9월 19일 멕시코 콜로니아 주아레즈에서 출생했다. 멕시코 혁명이 발발한 1912년 그의 가족은 북쪽 텍사스로 피신하였다. 그들은 아이다호주 렉스버그에 정착하였고, 후에 루니 부대관장의 부친은 리스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

직업이 변호사였던 루니 부대관장은 많은 사업체, 교육 기관의 위원으로 일한 바 있다. 보네빌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으로 일하던 1930년대 후반에 교회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



복지 계획 수립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후에는 총관리 역원으로서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의 회장이 되었다. 그분이 맡았던 관리 부분에서 선교사 프로그램, 교회 건축 위원회, 가정 복음 교육 및 가정의 밤 위원회 등을 빼놓을 수가 없다.

과거 2년 반 동안 회장 직무대리의 직으로 봉사해

새로 조직된 대관장단 (오른쪽부터) 룰니 부대관장, 리 대관장, 태너 부대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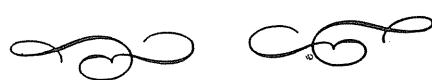


오다가 이번에 회장이 된 킴볼 장로는 1895년 3월 28일 솔트 레이크 시에서 출생, 아리조나주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다. 공직에서, 개인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그가 십이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1943년 7월 8일 아리조나주 스탠퍼드의 그래함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으로 일하던 때였다.

1957년 목에 악성 병을 앓아 성대를 하나 반이나 제거해 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목소리를 잊지 않았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사명, 가르침에 대하여 거칠없이 나오는 강력한 간증을 할 때에는 깊고도 침착한 음성으로 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종종 비유 형식으로 전개되는 설교나 글은 그의 깨끗한 생각과 복음의 원리에 대한 절대적인 설명으로 유명하다.

교회의 모든 회원, 역원, 지도자는 스테이크 대회와 10월에 있을 제142차 반연차 대회에서 이를 존경하고 아끼는 지도자들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리 대관장과 그의 보좌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왕국의 제반 문제를 인도해 나갈 때 우리 회원의 기도와 소망이 함께 할 것이다. ■



죠셉 필딩 스미스 사도 예언자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1972년 11월호

하

나님의 아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
성의 아버지되시는 죄셉 필딩 스미스 대판장은 평생
을 그처럼 사랑했고 영원한 포도원에서 큰 일을 이루
기 위하여 몸을 바쳐 봉사했던 주님의 부름을 받았읍
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면전에 다시 돌아가는 영광에 가득찬 시험을 마쳤다
는 사실에 기쁨을 금치 못한다면 지나친 말일까요?

이 하늘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 온 선택된 아들이 신
앙을 버리지 않았고, 자신이 창조된 의무를 완수하
고,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 갔다는 사실을 천사와 더
불어 기뻐한다면 지나친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어제의 영역에 진실했고 충실하였
으며, 첫 번째 지체를 잘 지켜 육신의 장막을 입으면
서 기쁨의 환성을 질렀으며,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으
로 헤아림을 받았던 죄셉 필딩 스미스는 하나님의 면
전을 떠나 1876년 7월 19일 훌륭하신 부모 사이에 태
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집을 떠나 거의 한 세기, 17일 모자라는 96
년 동안을 인간 사이에서 이방인이요 개척자로서 생
활하시다가 다시 집으로 부름을 받아 지상에서 맡겨
진 일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생전에 늘 음성으로 말
씀을 들던 주님으로부터 더 큰 빛과 진리를 받으며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에 앞장섰는
가 하면 신앙을 지키며 모든 일에 진실하고 충실했던
대판장께서는 드디어 자신이 그처럼 떠받들어 모셨던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1972년 7월 2일 일요일 오전 9시 25분에 지

상에서의 시험을 마치고 하나님에 마련하여 주신 낙
원에서 가족, 친지와의 반가운 재회를 누리고 있읍니
다. 아마도 그분은 영의 세계에서도 인간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담대하게 일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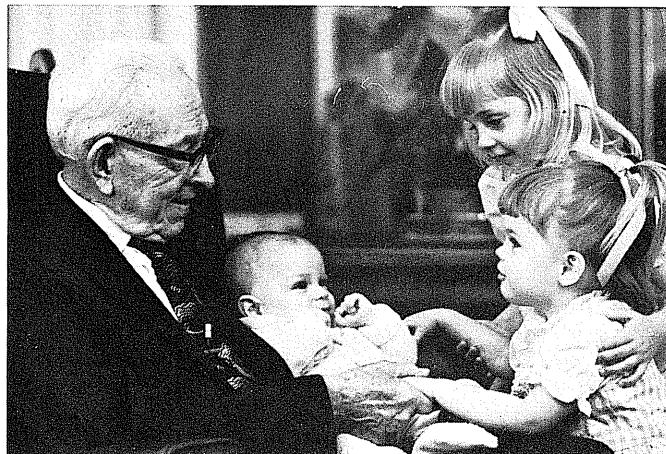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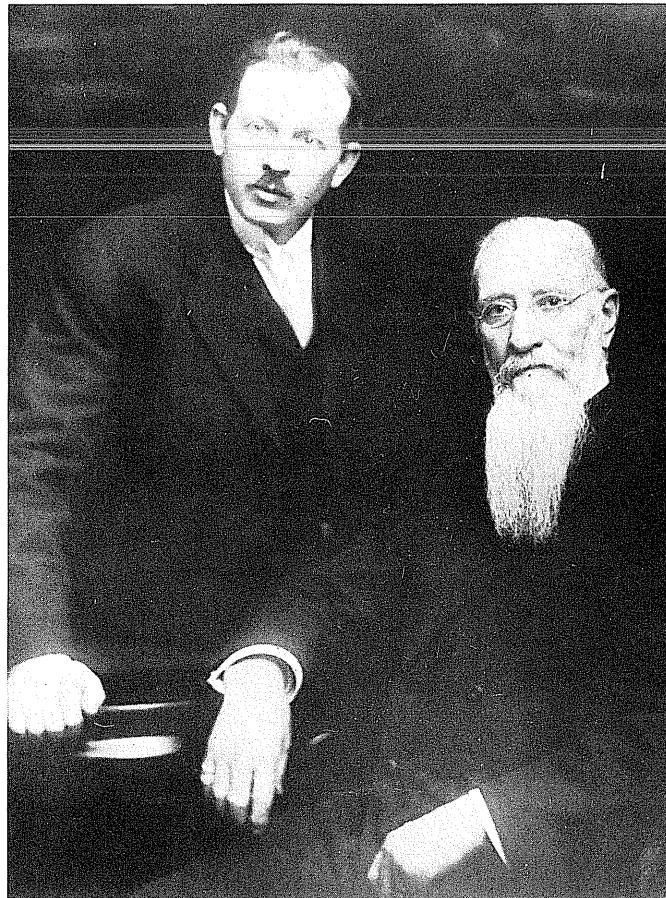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며 희생하시는 동안 그분
의 영혼을 담고 있던 장막은 노쇠하였고, 젊음의 열
정과 힘은 되찾을 길이 없고, 주님을 위한 봉사에서
꼭 하고자 하는 능력은 줄어들었읍니다. 노년의 침울
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아 “창조주의 자비로우신 계획”(나이 9:6)
을 이룩하셨읍니다.

지금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그토록 오랜 동안 잘 감싸주었던 육신의 병과 고통에
더 이상 시달림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체의 제약
이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할 수
있읍니다. 영원한 젊음의 힘과 능력을 구가하고 계십
니다.

그분은 세상에서의 만년을 가족과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인 교회의 총관리 역할의 사랑과 배려를 받으며
인정을 얻을 수가 있었읍니다. 아마도 그분의 복지에
대해서나 그분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또는 그
분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해롤드 비이 리, 엔 엘든 태
너 부대판장 만큼 열의를 보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영적인 힘과 의의 기둥이 되셨던 분들로
주님께서는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축복하
실 것으로 믿읍니다.

스미스 대판장님은 또 다른 친구와 가족으로 이루어
진 성스럽고 행복한 관계 속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
읍니다. 그분에게 죄세핀과 줄리나 두 딸을 낳아 주
고 일찍 육신의 고통을 벗고 영의 세계에서 성결케





된 성도와 함께 지내고 있는 루이와 함께 계십니다. 에밀리(마이어즈), 나오미(부르스터), 로이스(휘黠), 조셉 필딩 이세, 아밀라(벡콩기), 루이스, 레이놀즈, 다글라스, 밀튼 등 아홉자녀의 우아하고 충실한 어머니 에텔과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으며 그분이 져야 했던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용기와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제시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생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테두리 안에서 완전히 순종하고 공경하고 존경했던 부모님 —아버지(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어머니(줄리아 램슨 스미스)— 곁에 계십니다. 이차 대전중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아들 루이스와 테이비드 오우 벡케이 대관장, 이밖에도 함께 일하던 많은 동료, 더우기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할아버지 하이람 스미스와 반가운 상봉으로 기뻐하고 계십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교회, 지상의 하나님 왕국에서 제일 높은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1910년 4월 7일 아버지의 손에 사도로 성임되어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된 후로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알리는 특별한 중인으로서 강하고 겸손한 자를 위하여 불굴의 신념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를 통털어 보아도 그분처럼 여행을 많이 하고, 모임에 많이 참석하고, 설교하고, 의식을 많이 집행하고, 구원의 진리를 널리 알리는 글을 많이 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분의 음성은 계속하여 흙속에서 울려 퍼질 것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그분의 저서를 통하여 복음의 교리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직책, 특별한 지위 또는 선택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으로 그분처럼 복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분은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나 무한한 영원 속에서 성도들이 얻게 될 영광은 그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

한국적 민주주의 우리 땅에 뿌리박자.

고,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쓰는가, 그들이 어떤 가족 관계를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시고는 했습니다.

데이비드 오우 벡케이 장례식에서는 벡케이 대관장과 자매가 남긴 위대한 업적을 열거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와 이 지상에서 위대하고 중요한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만 그분들이 받는 귀중한 축복은 영원한 가족이라는 바탕을 통하여 얻게 될 것입니다.”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의 장례식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반스 형제가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일과 영향력에 대하여 찬사를 보낸 후에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지나간 생애와 업적을 되새겨 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하나도 빠놓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것은 다 했습니다. 침례를 받았고 성신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 앤리스와 혈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 의식을 가졌습니다. 복음의 율법에 순종하였으며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참다운 위대성이란 계명을 지키고 충실한 성도라면 누구나 밟아야 하는 일을 모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희망, 위안을 가져다 주는 지식은 없으며 이보다 훌륭한 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족 단위는 주님의 율법을 완전히 믿고 좋은 사람 사이에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인간, 예언자로서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는 할 말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분의 장례식에서 보인 애도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만 그칠가 합니다. ■

우리는
침례 서약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나의 침례서약

나는 매일 복음공부와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정확한 십일조와 금식헌금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신전에 갈수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모든집회에 빠짐없이 참석 하겠습니다.
나는 몸과 마음과 언행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 하겠습니다.
나는 신권을 받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나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조화의 영이 깃길에

1972년 11월호

전대판장 죄셀 필딩 스미스

교회의 대판장단으로 지금 내 곁에 서 있는 위대한 두분의 신앙, 헌신, 봉사에 대하여 본인은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해롤드 비이 리 부대판장은 에녹과 같은 신앙을 소유한 영적인 면에서의 거인입니다. 그분은 계시의 영을 갖고 계시며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서의 부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엔 엘든 태너 부대판장 역시 바로 지금 이 주님의 교회에서 그분이 수행하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봉사를 하도록 영원 전부터 준비된 고상하고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은 뛰어난 능력과 인품의 소유자이십니다.

교회의 대판장단이 하나로 뭉쳐 있으며,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

습니다. (교성 20:28 참조) 이와 똑같은 상태가 모든 스테이크 부장단, 감독단, 신권 정원회 회장단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나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과 그의 동료 사도, 그리고 총판리 역원의 노력과 봉사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내가 그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교회의 충실한 회원을 축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들이 진리와 덕성의 길을 계속하여 걷는다면 의로운 소망을 품을 것이며 적당한 시기가 이르면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두고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을 하기 위하여 전념해 왔으며 그분이나 자신에게 선하셨고 아울러서

계명을 지키겠다고 성약한 자 모두에게 정말로 선하셨다는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인생의 황혼기라 불리우는 지점에 서서, 멀지 않은 장래에 부름을 받아 육신을 입고 있을 때의 책임에 관하여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나는 이 위대한 사업이 진실하며 하나님의 일이라는 간증을 드리는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셨음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마지막 복음의 경륜을 시작케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으며 지금도 예언자라는 것을 알며, 특히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복음의 물결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굽이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알고 그분의 얼굴을 볼 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주님의 원성을 듣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 25:34)

그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이처럼 행복한 부류에 속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眸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고든 비이 헝클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경
1972년 11월호

얼

마전 저는 트러펠거 광장에 서서 넬슨경¹⁾의 동상을 유심히 쳐다본 적이 있었읍니다. 동상 밑에는 그가 트러펠거 전투가 벌어진 날 아침에 한 말이 새겨 있었읍니다. “영국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주기를 바란다.” 넬슨경은 1805년 역사적인 날에 많은 전우와 함께 전사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영국이라는 나라는 위험을 면했으며 결국은 대영 제국이 되었읍니다.

이래로 책임과 순종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이사야도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외쳤읍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 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 1: 19, 20)

제 나이 열 베인가 열 다섯인가 되었을 때 이 태버나클 2층 시계 바로 뒤에 앉아서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 소년 시절에 물론경을 읽던 경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나파이와 나파이가 자신의 생애에 미쳤던 중대한 영향에 대하여 말씀하셨읍니다. 그때에 지금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신념에 가득차 쟁쟁 울리는 음성으로 니

파이의 말씀을 인용하셨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니일 3: 7)

그때 제 젊은 가슴에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 보겠다는 결의가 생겼읍니다. 저는 주님의 영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신앙을 갖고 순종하는 태도로 임한다면 실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읍니다. 일전에는 잠수함 노티루스호²⁾를 타고 북극의 얼음 밑으로 해서 태평양으로부터 대서양까지 항해한 해군 장교 윌리암 로버트 앤더슨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었읍니다. 특히 엄두도 못낼, 위험을 극복한 행위였읍니다. 이야기는 이와 비슷한 위험을 딛고 일어선 경우를 설명해 주었읍니다. 이야기는 자신은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있는 낡은 카드를 지갑속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읍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 드리면,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믿는다.

나는 언제나 제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이라도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믿는다.”

저역시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이라도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읍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고(교성 89: 18) 신권의 충고를 쫓는다면 그분은 비록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곳에라도 길을 만들어 주심을 믿읍니다.

런던의 트러펠거 광장 맞은편에는 영국 국립 미술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죄슈아 레이놀드 작품으로 이미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삼상 3: 10)라고 대답한 소년 사무엘의 그림이 걸려 있읍니다.

그날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였으며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선택하여 성임한 사람도 바로 그였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쁨보다 낫다.” (삼상 15: 22) 고 사울을 질책할 때에 사용한 말은 시대

1) 넬슨 호레이쇼(1758~1805) 영국의 제독
나포레옹과 싸워 이김.

2) 노티루스호 : 1958년 8월 3일 북극의 얼음 밑으로 역사적인 항해를 한 미국 잠수함.

를 초월하여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합 왕에게 땅에 가뭄과 기근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한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단순한 말에서 큰 힘을 얻고는 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려자 주님은 엘리야에게 그릇 시냇가로 가서 몸을 숨기고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간단하고도 위대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앞 그릇 시냇가에 머물매”(열상 17:5)

이론을 제기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버무려 그대로 넘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앞 그릇 시냇가에 머물”었습니다. 그리하여 비웃고 이의를 제기하고 의구심에 가득차 있던 사람에게 떨어진 그 무서운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이 언제나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타당치 않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도록 하신 여호와가 모세와 나눈 이야기에서 위안을 받습니다.

모세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부적합하다고 느꼈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 저에게 명하지 마음소서”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출 4:10—12)

1837년 교회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히버 시이 캠볼을 불려 영국에 가서 그 지역을 개척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캠볼 형제는 겸손하게 외쳤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저는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에는 전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 제가 기독교계에서 학문, 지식, 신앙심으로 이름이 나 있는 그 땅에 가서 지혜롭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으로 제가 결어야 할 책무의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를 지지해 주시며 저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축복해 주시리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는 결의를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소중했고, 게다가 아무 것도 마련해 놓지 못하고 떠나야 했지만 저는 그 어떤 근심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참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손 에프 휘트니, 히버 시이 캠볼의 생애, 북크래프트 출판사 1967년, 104페이지)

그는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는 동반자와 함께 그들을 경원하는 지옥의 악마와 싸워가며 랑카샤, 프레스頓에서 전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일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만체스타에서 홀륭한 대회를 가진 바 있읍니다만 이것이다 두려웠으나 충실히 시작한 대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명이 마음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문동병자 나아만은 말과 마차를 거느리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 갔읍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만나지도 않고 사자를 시켜 이런 전갈을 보냈읍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러나 자부심과 오만에 가득찬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같은 달갑지 않은 명령에 기분을 상하여 그대로 가버렸읍니다. 그러나 종들이 불잡고 해결하자 마음을 고쳐 먹고 다시 돌아 갔읍니다.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열하 5:1—14)

이곳 태버나를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몇년전 콜로라도주 벤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웨스턴 스테이트 선교부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읍니다. 그는 대학 토론 팀의 일원으로 벤버에 여러 번 기본 적이 있었읍니다. 산 하나만 넘으면 되는 거리였읍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부모는 “이상한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먼곳”,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선교 사업을 희망해 왔었읍니다. 친구들도 빙그레 웃고는 했읍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도 부르신 분의 지혜와 영감에 대하여 의구심을 나타냈읍니다. 그래 하필이면 그렇게 훌륭한 젊은이를 솔트 레이크시에서 벤버로 부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여하간에 그는 떠났읍니다.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읍니다. 그가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도 있읍니다. 그는 선교부장의 보좌로 지명되어 지도력 훈련의 기회를 경험하게 되었읍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후에는 결혼하게 되었읍니다. 그 선교부에서의 참으로 특별

한 기회를 통해서 귀하게 주어진 직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자질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 십이사도 지역대표의 한 사람으로 이곳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뒤에 앉아 계신 해롤드 비이 리 부대관장도 거의 비슷한 환경을 딛고 선교사로 일했으며, 이같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삶에서 보아 왔고 그분을 그토록 좋아하게 만든 위대한 품성을 길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사십년 전에 저는 영국에서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에프 메릴(1868—1952) 장로가 선교부장을 하던 구라파 선교 본부에서 병직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런던의 수개 신문에 정말 형편없는 기사를 실었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옛날 책을 복사해 가지고는 이것이 물론의 역사라고 헐뜯는 것이었습니다. 메릴 선교부장은 저에게 “장로가 발행인을 찾아가서 이에 대한 항의를 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장을 쳐다보며 “저는 좀 적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뻔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겸손하게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안정하려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바로 왕을 만나고 하셨을 때 이와 같은 감정에 떨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끄렷가로 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굿즈 정거장으로 발걸을 옮기고 있었으나 가슴은 맹렬하게 뛰었습니다. 저는 사장실을 찾아가 비서에게 명함을 주었습니다. 비서가 명함을 받아들고 안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스캐핑튼 사장님은 오늘 바쁘기 때문에 면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천 마일도 넘는 데서 왔기 때문에 한시도 기다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채 한 시간도 되지 않는 사이였지만 비서는 사장실을 서너 번이나 왔다 갔다했습니다. 드디어 안으로 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진 시가를 불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닌 어떤 힘이 저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사장은 처음부터 변명에 급급했고.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면담은 끝났습니다. 한 시간의 지나지 않아서 영국의 모든 서점에 신문에 기사를 제공했던 문제의 책을 전부 회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 책이 실화가 아닌 소설이며 더구나 훌륭한 물론교도를 비방할 뜻에서 저출된 책이 아니라는 해명서를 인쇄하여 첨부해 주었습니다. 후에 그는 교회에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며, 그는 저에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년 성탄 카드를 보내 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신앙심에 싸여서 신권의 요구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년전 지난 금요일에 나는 이 웅장한 태버내를 안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성임되었읍니다. 이십년이란 매우 놀랄만한 기간이었으

며,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신앙심을 북돋는 경험을 몸소 체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은 훌륭한 경험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고 영적인 감회를 안겨 준 모임은 우리의 동편에서 있는 신전에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갖는 주례 모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뜻을 알려는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됩니다. 이 거룩한 곳에는 교회가 제의한 프로그램을 결정하도록 계시의 영이 함께 합니다.

이십년의 경험으로 나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의 백성에 관한 그의 뜻과 방법을 알려 주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도록 요구된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과 기도와 결단력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일성도의 행복, 말일성도의 평화, 말일성도의 발전, 말일성도의 번영, 말일성도의 영원한 구원과 승영은 하나님 신권의 권고에 순종하며 살아 가는 데 달려 있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찬송가 59장)

오 하나님! 이시여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여 이 말일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시여 그대를 믿는 신앙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즐거운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 당신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구합니다. 아멘. ■

몰몬 사상의 정수

1972년 11월호



제8대 대관장 죄지 앤더슨 스미스는 1870년 4월 4일 솔트 레이크 시에서 탄생했다. 그는 종종 눈을 깜박이면서 주로 생일날에만 연차 대회에 참석하게 된다고 말씀하기도 하셨다. 대관장을 잘하는 사람들은 연차 대회 야말로 대관장이 무척 참석하기를 좋아한 곳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1903년 10월 8일 죄지 에프 스미스 대관장에 의해 사도로 성임되었고 1945년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받았다. 그는 자신의 생일날인 1951년 4월 4일에 돌아가셨다.

“너희는 값 없이 받았으니 또한 값 없이 나누어 주라”는 주제는 1945년 워싱턴(미국의 수도) 와드에서 행한 말씀에서 따온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세상의 귀족에 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인정하시는 귀족은 단 하나뿐 인데 그것은 바로 의를 추구하는 귀족입니다. 기록을 보면 하나님 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주는 털끝 만큼의 죄도 복과 할 수 없음이니라.”(교성 1:31)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죄한 상태

너희는 값없이 받았으니 또한 값없이 나누어주라.

조지 앤더슨 스미스(1870—195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8대 대관장

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상실한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배우고 명심하여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우리의 삶을 적응시키고, 지상 생활에 차별을 고할 때가 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왕국에서 거할 처소를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한 일이 회상됩니다. 나는 그때 영국에서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옆자리에 앉은 손님은 장로 교회 목사였는데 그가 내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을 때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는 놀라며 “당신은 그 교회에 속한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저는 교회가 참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면 부끄러워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내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에게 설명해 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왜 영국에 와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이 훌륭한 땅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들이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둘로 분리시키기 위해 이곳에 옵니까? 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는 목적은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가져가기 위해서나 여러분의 가족을 분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며 더우기 교회를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돌보아야 할 교회와 목사가 많이 있는 때에 당신은 우리 나라에 또 목사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왜 당신네들은 우리들처럼 이 교도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전파하고 있읍니다.”

“어디서 전파하고 있읍니까” 그는 질문했읍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곳 중의 하나

가 영국입니다.” 그는 약간 불쾌한 듯 보였읍니다. 나는 미소를 띠며 말을 계속했읍니다. “형제님, 당신을 화나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시

켜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교도입니까?” 이 질문에 그는 정의를 내려 주어야 했읍니다. 이교도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 정의는 틀림없읍니다. 그 다음 나는 이런 질문을 던졌읍니다. “영국에 이와 같은 이교도가 있읍니까?”

“많이 있지요.”하고 그는 대답했읍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개종시키지 못했고 우리가 여러분을 도와 주기 위해 온다면 여러분은 나와 동료들에게 불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나라에 있는 훌륭한 백성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익혔고, 여러분이 가진 경전에서 탐구한 위대한 진리를 지키도록 권고합니다. 교육 기관을 통해 훌륭하게 훈련을 쌓은 대로 생활하시고 각 부문에서 얻은 지식과 진리를 모두 지키십시오. 훌륭하게 닦은 인격도 그대로 가지시고 훌륭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쌓은 인격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간직하십시오. 또한 이 아름답고 훌륭한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마음에 느낀 사랑과 아름다움을 하나도 남김 없이 그대로 간직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복음의 일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리를 같이 하고 앉아 여러분의 생애에서 아직 한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우리의 생을 풍요롭게 해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돈도 받



지 않고 값 없이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일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 달라는 것 뿐입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거리낌 없이 받아 들이십시오. 그러나 그 이야기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받아 들여 자기의 생애를 풍요롭게 할 운이 좋은 사람을 다시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잠시 이러한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미국에는 물론 그외에 다른 나라에도 홀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용기 있고 견실하며 지성을 갖춘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면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으나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세상의 구세주가 되심을 모르고 있고, 그는 범속한 인간과 같이 죽어 사라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장하여 지도자가 될 나이에 이르러 자신이 할 일을 알았을 때 그 당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던 그의 사촌인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려 했던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마땅할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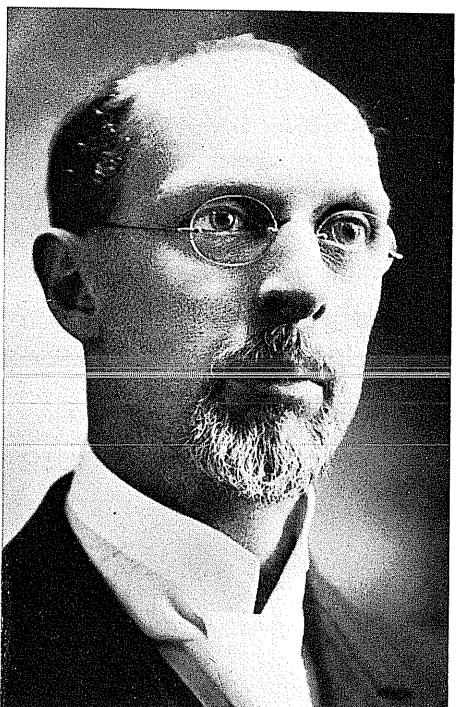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마 3 : 14—15)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중의 무덤으로 내려 가셔서 물에 침수되셨다가 물에서 올라 오셨으며 이때 성신이 그에게 비둘기 같이 내렸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 : 17)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나사렛 예수는 교회를 조직하셨고 백성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가셨고 그의 시체가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안치되어 있은 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의 시체를 매장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 갔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무덤 입구에 있던 큰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 속을 들여다 보았을 때 찾고 있는 사람은 없었으나 자기들이 놀라는 것을 지켜 보고 서 있던 한 사람이 여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리아는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주를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부활하였노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만 “마리아야”라고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다시 살아 난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무나 기뻤으므로 그를 만져 보려 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상 : 십이사도 때의 스미스 대관장

하 : 소년단 활동으로 이름난 스미스 대관장은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이셨다.



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 20 : 15—17 참조)

또 제자들이 원수들을 무서워하여 방에 모여 문을 잠그고 있었을 때 훌연히 그 방에 살아 계신 불멸의 몸을 가지신 분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믿지 못하고 놀라기만 하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눅 24 : 39 참조)

현재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받아 들이고 있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자녀들 중에 수백만 명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이 사실일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반구의 바운티풀 땅에 위치한 신전 주변에 백성들이 큰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을 때 갑자기 한 음성이 임하였고 저들은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았고 불멸의 몸을 입으신 영화로우신 분이 저들 앞에 서시어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니 삼 11 : 10)고 하셨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앞에서는 무력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으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방문하셨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행복하고 영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말일의 경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사명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경전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희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 1 : 5)는 성구를 읽은 평범한 농부의 아들인 14세의 소년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방문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이 성경의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까? 그 약속은 이렇게 성취되었습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 보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행할 사명이 있으므로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고 장차 그 임무가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볼 때 구제주는 유대인에게 나타나셔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고 서반구에 사는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의 교회를 조직하시고 이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제주는 우리 시대에, 불과 100여년 전에 우리를 방문해 주셨는데 이때 아버지와 아들은 어린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또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침수로써 침례를 받

고 성신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는 교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들인다면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는 여러 가지 훌륭한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 : 33) 나는 여기서 복음을 받아 들인 말일성도 젊은이에게 단호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가치있는 축복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를 자기의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나누어 주려는 자들이 맛볼 수 있는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에게 주는 것으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고상하고 풍요로운 것들을 나누어 주면 출수록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큰 생명의 분수처럼 발전하여 영원한 행복을 향해 솟아 오를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일들이 진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頤

“네 형제를 굳게하라”

로버트 엘 심프슨 감독 관리 감독단

신 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나는 이러한 기회를 갖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관리감독단의 형제들은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이 오늘 밤 이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참석한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 견해에 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신권회에 참석한 것에 관한 다음의 이유를 예 또는 아니오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족이 왔기 때문에 참석해 있다.

2. 오늘 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축구 중계가 없기 때문에 참석해 있다.

3. 아버지께서 오늘 신권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석해 있다.

4.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신권이야말로 이 우주에서 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권능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참석해 있다.

이상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였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여기에 참석한 것을 기뻐하고 계시며 여러분은 이미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이 전하시는 지시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풍족하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오늘밤 여러분 곳에서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특별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거나 함께 어울리는 데 필요한 격려를 해 줄만큼 관심을 기울여 준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한 신권소유자가 네 명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상 가장 성대한 신권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매우 흡족하게 느끼고 있지 않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이 모임에서 행해지는 일과 직접 관련있는 다섯 가지 중요한 일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사에 비추어 볼 때 현대에 나타나셨습니다.

2. 하나님의 영원한 신권의 모든 열쇠와 권세는 그에 따른 모든 권능과 인류를 위한 축복과 함께 지상에 회복되었고 다시는 거두어지지 아니합니다.

3. 하늘 사자 아홉명이 지명을 받고 회복을 돋기 위해서 현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신 사도 베드로, 침례 요한, 모로나이, 엘리야, 일라이어스입니다.

4. 이 혐악한 시대에 계속 인류를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총 1,076페이지에 달하는 경전이 추가로 제시되었습니다.

5.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살아 계신 예언자께서 이 모임을 관리하시고 현대에도 계속적으로 계시를 받음으로써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신문에 앞서 언급한 사실이 모두 표제로 실려야 합니다만 실제로 진리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30억여 명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받을 뿐입니다.

“하늘 사자의 방문, 유일하고 참된 신권, 추가로 받은 경전, 그리고 살

아 계신 예언자 등에 관해서 여러분이 열렬히 주장하나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젊은이 여러분, 나는 만사를 다 알고 있지는 않으니다만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를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만약 우리들 중에 누가 아직도 이 진리를 확실히 모른다면 주님의 영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확인시키고 싶어 하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경전에는 “이러므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자는 적도다.” (교성 121:40)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부름도 받고 택함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다섯 명 중에서 이 훌륭한 모임에 참석할 결정을 내린 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밤 이곳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였는지 모르나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참석하기를 원하였던지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 참석하기를 바라고 계셨던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기쁨을 느껴도 좋습니다.

“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주님은 그들이 택함을 받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얹매어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갚구함이며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한 가지 위대한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이 교훈이야 말로 여러분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교성 121:34-36)

참으로 여러분이 이 곳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슴 설레이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더욱기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시작해야 할 일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교회는 모든 회원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표어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여러분의 곁에 있어야 하나 현재 참석하고 있지 않은 여러분의 친구 네 명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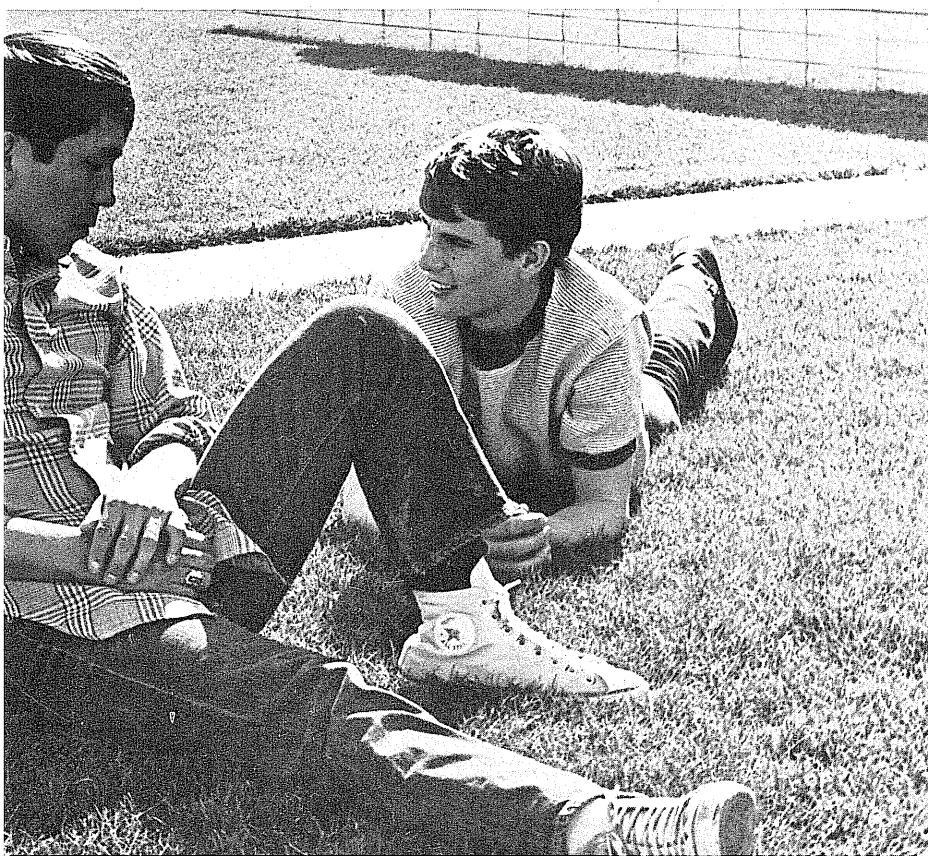
니다.

구세주께서 그의 생애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되풀이하여 사용하신 주제는 “모든 인간은 형제를 지키는 자(창4:9 참조)이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신권의 책임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경전의 말씀 가운데 이와 비슷한 성구가 있습니다. …너는 돌아친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회원과 관계를 맺는 책임과 신권의 참여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침례 서약을 받아 들이거나 신권의 명예를 받아 들이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혼자 내버려 두자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를 교회에 참석하라든지, 신권회에 참석하라든지, 또는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 하며 설득시키는 것은 좌절감과 곤경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 다시 주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형제를 지키는 자이고, 돌아친 후에 형제를 굳게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독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걸요. 나는 이제 겨우 집사 정원회 회장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리라.”(니일 3:7 참조) 주님은 또 이



“네 형제를 굳게하라”

령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백성을 향하여 너희 목소리를 높이라. 내가 너희 마음에 떠 오르게 하는 생각을 말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말해야 할 바로 그 시각 바로 그 순간에 너희가 말할 바를 알게 될 것임이니라.”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기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모두 엄숙한 마음과 온유한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곧 너희가 이 일을 행하면 성신께서 너희에게 오사 너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증거해 주시리라.”(교성 100 : 5—8)

여러분이 이 성스런 방법을 따르다면 입술로 말하고 귀로 듣는 식의 태성에 젖은 의사 소통의 태두리를 벗어나서 여러분의 친구와 접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신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은 친구의 마음을 깨뚫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합당한 회원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훌륭한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설득을 받을 것입니다. 개종자도 이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교회에 들어 왔고, 이러한 방법은 여러분 각자가 꾸준히 발전시키고 향상시켜야 할 중요한 영적 은사가 될 것입니다.

진실로 교회는 모든 회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회원의 명단은 너무 많습니다. 대관장단은 이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주님께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백성들을 깨우치게 할 하늘의 표적

이나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 백성들은 서로 도움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은 애초에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말은 영원한 원리요 방법입니다. 오늘 밤 이 곳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신임 집사에서부터 오랫 동안 봉사해온 대제사에 이르기까지 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이야기의 내용이 청소년 아론 신권 소유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모든 원리는 이 위대한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끝맺고 싶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なり. 사악한 자가 너희를 정복하여 너희 처소에서 너희를 옮겨 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교성 93 : 49)고 하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다만 악마가 여러분을 “여러분의 처소에서 옮겨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예임되었거나, 선택을 받았거나 또는 부름을 받고 성임 받았다고 한다면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악마에 속박되지 않도록 생활하십시오. 이는 사탄이 미칠 수 없는 한계 점이 있음을 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로운 일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형제들을 도와 그들이 다시 활동적인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우리의 노력이 영적인 산문 시와도 같은 다음의 훌륭한 계시에 중심을 두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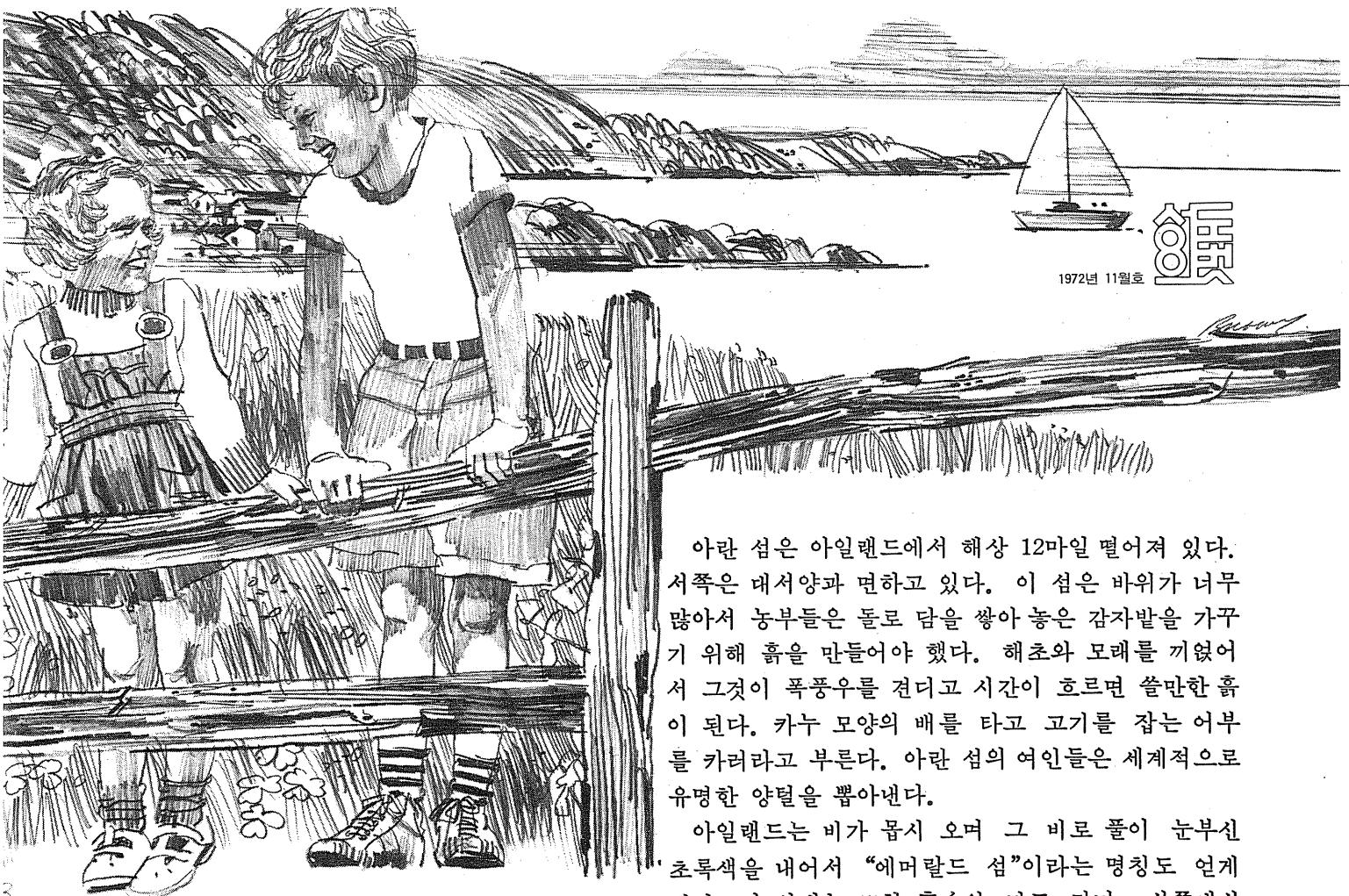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훌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훌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게로 흘러 들어가리라.”(교성 121 : 45—46)

참으로 훌륭한 약속이 아닙니까. 그리고 훌륭한 목표가 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충실한 자 다섯 명 가운데서 오늘 밤 이 곳에 참석할 자격을 갖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누구가 형제를 지키는 자이겠습니까? 신권 소유자인 여러분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든 안하든 틀림 없이 대부분은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경전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이는 교회가 모든 회원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이 신권회에 참석한 충실한 신권 소유자 10만여 명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罷



8월

1972년 11월호

아일랜드에 있는 친구들

아일랜드는 영국의 여러 섬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이 섬은 영국 본토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일리시해, 북 해협과 성 조오지 해협으로 영국과 분리되어 있다. 현재에는 이 섬은 두 개의 통치권으로 갈라져 있다. 즉 북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의 두 지역이다. 아일랜드 서해안에는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란 섬과 블래스켓 섬이 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아일랜드인은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아란 섬 사람들은 고유 언어를 고수해 왔고 지금까지도 게일 언어(아일랜드말)를 그대로 사용한다. 아일랜드 인들은 모국어를 거의 잊어 버리게 되자 1919년에는 국어로 게일어를 선언하고 제이의 국어로는 영어를 사용하기로 선포했다. 아일랜드인 중에는 모국어를 익히기 위해서 아란 섬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

아란 섬은 아일랜드에서 해상 12마일 떨어져 있다. 서쪽은 대서양과 면하고 있다. 이 섬은 바위가 너무 많아서 농부들은 돌로 담을 쌓아 놓은 감자밭을 가꾸기 위해 흙을 만들어야 했다. 해초와 모래를 끼얹어서 그것이 폭풍우를 견디고 시간이 흐르면 쓸만한 흙이 된다. 카누 모양의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부를 카리라고 부른다. 아란 섬의 여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털을 뽑아낸다.

아일랜드는 비가 몹시 오며 그 비로 풀이 눈부신 초록색을 내어서 “에머랄드 섬”이라는 명칭도 얻게 됐다. 이 섬에는 또한 호수와 강도 많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습기 찬 부드러운 바람으로 목초가 잘 자라며 양, 소, 말이 그 풀을 먹고 잘 자라게 된다. 에머랄드 섬 전역에는 말쑥하게 경작된 비옥한 땅으로 둘러싸인 백색으로 칠한 초가집 농가가 아름답게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장 특색있는 광경 중의 하나는 안트립군에 던스 베릭 성 가까이에 있는 북 아일랜드의 천연 거인의 두령길이다. 수천년 전에 냉각된 용암이 세종으로 원통형 현무암을 형성했다.

서쪽 해안에는 대서양이 절벽 위 삼백 피트까지 물보라를 뿜는다.

아일랜드에는 큰 전투를 한 장소나 종족의 경계를 표시한 바위 기둥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서기 432년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어떤 기둥에는 채석 공이 글을 새겨 메시지를 조각하기도 했다. 이것이 오그함 알파벳으로 알려진 것이다.

아일랜드는 아마포와 레이스를 잘 짜기로도 유명하다. 아일랜드의 어린이들은 영국의 어린이들이 하는 놀이, 즉 칙커리(술래잡기 비슷함)와 머핀 장수 놀이를 많이 한다.



초라한 막사

매리 프랜 패리쉬 글
버지니아 싸전트 그림

막 주 목요일이면 원터 쿼터즈의 사람들은 우체국으로 사용되던 작은 통나무 집에 모인다. 브리감 영은 그들 나름으로 독립적인 우편 사업을 설치하여 나부, 가든 그로브, 마운틴 피스가, 카운실 브라프스, 원터 쿼터즈에 흘러져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였다. 그날도 목요일이었다. 토미와 베시는 어머니와, 엘리자 및 엘리야와 함께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다. 클레이튼 형제가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읽어 내려갈 때 토미는 자기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는 난생 처음 편지를 받아 보았다. 그는 멀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그는 너무 기뻐서 편지를 읽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 편지는 나부에 아직도 남아 있는 친구인 요셉에게서 온 것이었다.

토미야,

우리도 마침내 떠나게 되었단다. 집과 땅을 팔아서 마차와 다른 필수품을 살 수가 있었어. 우리 식구는 내일 미시시피 강을 건너게 될거야. 나부는 네가 떠나간 이후 아무 재미가 없어졌어. 형제님들 몇 분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 도시 밖으로 나가셨단다. 그런

데 폭도에게 불들려서 막대기로 얻어 맞았단다. 매를 맞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었단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막강을 건넜지만 원터 쿼터즈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평원에서 아직 막사를 치고 있단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병이 들었어. 양식이 떨어진 사람도 있단다. 우리 어머니는 이들에게 구조의 손길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더라.

난 몇 주일만 있으면 너를 만나볼 수 있어서 아주 기쁘단다. 우리는 강만 건너면 곧장 원터 쿼터즈로 떠날 예정이야. 어머니는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너하고 같이 학교도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니.

친구 요셉이.

그날 밤에 잔 일을 모두 끝내고 엘리야와 토미는 토미의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부에서 쫓겨나 강을 건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출곧 생각했는데 말이예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토미가 말했다.

“브리감 영 대관장께서 그들을 도울 방편을 마련하실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가서 잠이나 자렴.”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다음 날 토미와 엘리야가 소를 지키고 있는데 베시와 엘리자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무슨 일이 있니?”하고 토미가 소리쳤다.

“그게 아니라, 브리감 영 대관장님의 심부름으로 왔어. 지금 빨리 그분의 막사에 가봐!”하고 엘리자가 대답했다.

“왜 그러실까?” 엘리야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 나하고 베시가 소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어서 다녀와”하고 엘리자가 대답했다.

토미와 엘리야가 브리감 영의 막사에 가보니 토미의 어머니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했다. “난 너희들이 나부 강변 이쪽에 있는 불쌍한 캠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차 한 대씩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음식, 의복이 없고 은신처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있단다. 너희는 그런 큰 일을 맡기에는 어리진 하지만 내 생각에는 너희들이 잘 해낼 것 같구나. 알란 형제가 마차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줄테니 그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렴.”

토미의 어머니는 두 소년을 바라 보았다.

“나하고 동생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다”하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나부까지의 긴 여행은 즐거웠다. 소년들이 강에 가까이 이르자 토미는 하늘이 어두워진 것을 알았으며 새떼가 맹렬한 속도로 날리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 순간 그들은 메추라기 수천 마리가 머리 위에 나는 것을 보았다. 수천마리의 새가 마차 위로 마차 안의 바닥으로 혹은 두 소년의 머리와 팔에 내려와 앉았다.

마차 행렬이 캠프로 들어갈 때 그들은 메추라기가 땅에 공중에, 텐트에 혹은 사람들 위에까지 많이 주저앉은 것을 보았다. 새들은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병이 든 사람이 기운없이 손을 뻗쳐서 잡아도 메추라기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커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구나”하고 어느 형제는 막사에서 나오면서 말했다.

“이곳에 있는 사람이 끓어 죽게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음식을 보내 주신 것이야.”

토미는 이 때 갑자기 아주 오래 전에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신 이야기를 들은 것을 생각해 냈다.

바로 그때 요셉이 막 달려왔다. 그는 토미와 함께 서로 팔을 뻗어 꽉 껴안았다. 다시 만나서 즐거웠고 모두가 음식을 가질 수 있어서 기뻤던 것이다. “기적 이야!”하고 요셉이 외치자 토미도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





니파이의 아들

1972년 11월호

몰몬경 이야기, 마벨 존스 개봇 옮김
제리 하스톤 그림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미대록 제이라 헤블라에 살았다면 오랫 동안 예언되어 온 기적을 믿었겠습니까? 니파이는 믿었습니다.

니파이는 레이맨인 사류엘이 성벽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오늘이 지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것이오. 그 표적이 있으리니, 한 낮과 밤과 그 다음 낮이 모두 한 날같이 밤이 없을 것입니다……”고 선언한 이후로 구세주 탄생의 표적을 주시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니파이가 햇수를 세는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부터 거룩하게 보존되어 온 모든 것과 놋쇠판과 기록을 보관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언자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대로 마음을 강퍅하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들은 “때가 이미 지나갔으니 너의 믿음이 혀되리라”고 말하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힐 16:18)

그러나 니파이와 그의 백성은 진 낮의 기적이 올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 일은 불신앙자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느 날을 정하였고,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이 날에 이르도록 사류엘이 말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가 태어나리라고 믿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리라”(니삼 1:9)

니파이는 자기 백성의 사악함을 보고 슬픔이 가득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예수가 지상에 태어나라는 믿음 때문에 멸망될 지경에 이른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니파이는 주님께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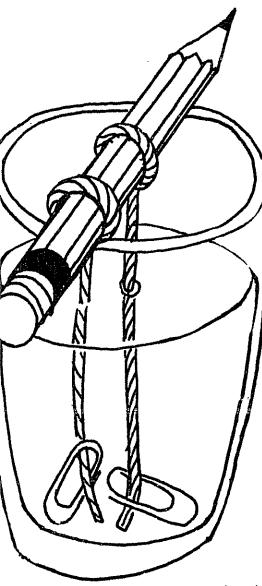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오늘 밤으로 표적이 보일 것이요 내일 내가 세상에 태어나리라.”(니삼 1:1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해가 기울었는데도 어둡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 중에도 많은 수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한 낮처럼 밝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해가 솟아 오르자 니파이와 다른 신앙인들은 그 표적으로 인하여 그날이 주님께서 태어나실 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예언자의 말씀대로 새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표적과 기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파이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또다시 한번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

돌 사탕



결정체는 크기나 모양이 여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결정체의 모양은 원자가 분자를 이루는 방법에 따라 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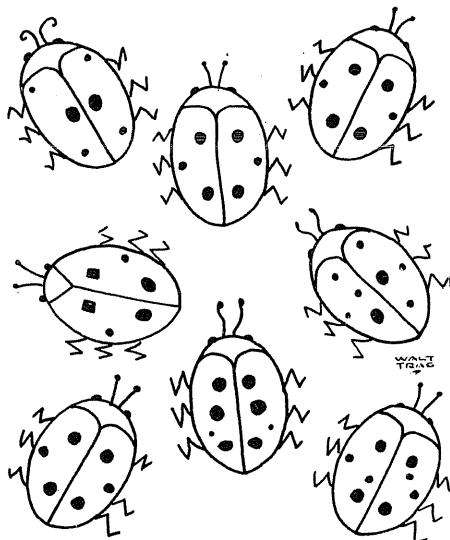
사탕의 결정은 보통 확대경 없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돌 사탕 결정체를 쉽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물 한 컵을 담은 팬에다 설탕 두 컵을 붓는다.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혼든 다음 입이 넓은 유리잔에다 설탕 물을 따른다. 연필에다 두 세개의 깨끗한 무명 조각 끈을 묶어 두고 끈의 끝에다 종이 끼우개를 끼워서 끈이 움직이는 것을 막는다. 연필은 컵 위에 얹고 실은 설탕 물 속에 담근다. (그림 참조)

며칠 지나면 작은 사탕의 결정체가 끈 위에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정체가 크게 형성 될 때까지 가만히 놔아 둡니다. 만약 물 위에 더께가 끼면 그것을 걷어내어 물이 계속 증발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결정체가 만들어진 후에 여러분은 집에서 만든 “돌 사탕”을 맛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닮은 꽃 찾기. 월터 트랙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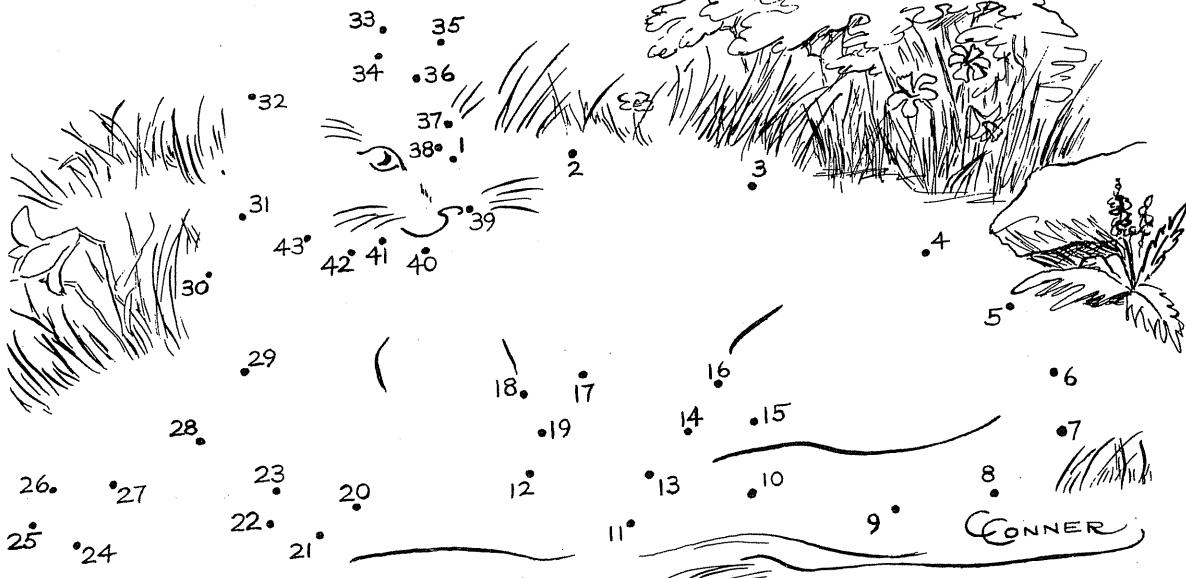
완전히 똑같은 무당 벌레를 찾아서 색칠하시오.



점 잇기.

캐롤 콘너 작.

각 점을 번호순으로 이으시오. 무엇이 됩니까?



질의응답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 두다

“교회는 인디안이나 폴리네시아인 (혹은 다른 종족)이 훌륭한 회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네 문화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대답 쇼우

교회는 내가 세상 어디에 가든지 친구가 있게 해 주었읍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며 그런 다음 나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디안일 수도 있고 일본인, 철레인, 남아프리카인, 불란서인 혹은 북아메리카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교회 회원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음을 생활을 하면 누구나 예외없이 발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하여 생활이 달라지며 더욱 부유해집니다. 복음이 문화적인 것 즉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을 버리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신약개조 13조)

다음 사항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1.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미국의 교회도 아니고 유타 주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전 세계적이어서 국적과 종족을 초월한 교회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점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 19-20)

1971년 8월에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영국의 만체

스타 지역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국의 록키산 기슭에 사는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한 것은 아주 오래 전 일입니다. 교회의 본부가 솔트 레이크 시에 있고 주님의 집이 그곳에 세워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의 집단으로서 체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또한 우리의 책임은 인자가 재림하기 전에 모두 나라에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개종시켜 성도의 무리를 세우며…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적인 교회에 속하고 있으며 또한 발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어서 영국 제도에 있는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땅을 비옥하게 가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2. 우리의 문화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세상에 있지 말고 세상 안에”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배후 환경과 문화에는 아주 놀랍고 빛이 되는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잊혀진 전통이나 행동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끌어내고 악한 것은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 회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전통이 있으면 우리의 생활에 그것을 준수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복음의 원리에 위배되는 나쁜 전통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 들인다고 해서 조국을 떠나거나 문화를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로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 8)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걸리라” (출 20: 12)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당대의 부모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상과 민족에게도 적합한 존경을 표하라는 것을 함축하는 계명입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것의 일부는 확실히 우리가 그분들의 생활에서 좋은 것을 본따며 그들을 위해 계보 사업과 신전 사업을 하여 그들도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 국적을 가졌든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와 세상에다 좋은 영향을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이 세상에 두루 퍼지면 교회 회원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문화권에서 적합한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프랭크 엘 브래드 쇼우

제사 정원회 고문

신학 연구원과 세미너리의

부 관리인.

어릴때 주님을 섬긴 것

경전에는 어린 사람이 주님을 섬긴 예가 많이 나와 있다. 가장 큰 예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박학한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여”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이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여기었을 정도로 그는 지혜로웠다. (누 2:46—47)



노아

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 였으나 주님께서는 어느 날 밤 그를 부르셨고 그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고 대답했다. (삼상 3:7—10)

다윗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제

17:33, 37)

리하이의 아들 야곱은 일찍부터 의로운 일을 행하여서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소리쳤다. “너는 네가 아직 어렸을 때 주의 영광을 보았으며 주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가르치실 자들처럼 복되리니”(나이 2:4)

니파이는 어린 동생 야곱의 영적인



사缪엘



요셉

그 밖에도 여러 예가 있다. 노아는 “십세에” 그의 할아버지인 므두셀라의 손으로 신권을 받았다. (교성 107:52)

요셉은 열 일곱 살의 어린 나이로 애굽으로 팔려갔으며 이미 그전에 주님께서 현몽하셨었다. (창 37:1—28)

“사缪엘이 어렸을 때에...여호와 앞에 섬겼더라...아이 사缪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삼상 2:18, 26) “사缪엘

안했으나 사울 왕은 다윗이 너무 어리다고 선뜻 받아 들이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윗은 쉽게 실망하지 않고 이미 자기가 사자나 곰과 싸운 적이 있다고 되풀이하여 설명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자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견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견져내시리이다”(삼상

성품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동생 야곱도 내가 보았던 것 같이 역시 구속주를 보았다고 말했다 (나이 11:3)

이천 명의 젊은 용사들은 주님께서 축복하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저들은 모두 젊어 뛰어나게 용맹스럽고 기운차며 활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진실하며 무엇을 하든지 맡은 바에 충실했었다”고 경전에 언

에 관한 경전 이야기

급되어 있다. (엘 53 : 20)

“나의 아들들은 싸워 본 경험이 없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목숨보다는 부모들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참으로 저들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것을 모친에게서 배운자였다.” (엘 56 : 47)



다윗



몰본



요셉스미스

“……저들은 어리며 저들의 정신은 굳세며 계속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느니라” (엘 57 : 27)

“……저들이 모두 어렸고…” (엘 56 : 46)

예언자 몰본은 이렇게 적었다. “내가 열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성품이 성실하였던지라, 주께서 나를 방문하시매 내가 예수의 선하심을 맛 보아 알게 되었고” (몰 1 : 15)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체구가 큰

나를 백성들은 저들의 지도자, 곧 저들 군사의 지휘자로 삼은지라.

“내 나이 열 여섯에 레이맨 인들을 대적하여 다파이 군대의 앞장을 서 나아가니……” (몰 2 : 1—2)

요셉 스미스는 열 다섯의 어린 나아이로 첫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는 후에 어렸을 때의 이 사건을 기술하

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딤전 4 : 12)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의와 밀음과 사랑과 화평을 쟁으라” (딤후 2 : 22)고 했고 또 이렇게 전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 : 15)

면서 스스로 “어리고 세상 일에 미숙한 소년…이름도 없는 일개의 소년이었고 다만 만 십 사세를 넘긴 소년으로 더우기 생활 상태로 보더라도 하등 세상에 보잘 것 없는 자였지만…” (요셉스미스 2서 2 : 8, 22)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룬 업적은 예수의 업적 다음으로 중요하다(교성 135 : 3)

자기보다 연소한 친구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

지혜를 가지는 것이 늘 나이가 많은 것만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고로 엘리후는 이렇게 말했다. “내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욜 32 : 9) 또한 엘마는 “여러 번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어 지혜있는 자와 학식이 있는 자를 당황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엘 32 : 23)

(예일 킬본 그림)

H랭크 호킨스가 그것에 관해서 잠시라도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면 그는 스스로가 훌륭한 말일성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교회 출석이 불규칙적이고 해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에게 요구되는 모든 계명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는 복음의 진실함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프랭크가 어느 일요일 오후 낮잠을 자는 동안 아주 이상한 꿈을 꾸지만 않았더라면 그는 자신이 교회에서 보통 정도의 회원쯤은 되리라고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 50년간 살아온 생활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 갔을 것입니다.

프랭크는 마음도 착하고 매사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얼굴이 햇빛에 타서 거무스름했으며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때 검고 웨이브가 져 있던 그의 머리가 지금은 반백이 되었습니다. 그의 검게 탄 얼굴에 대조를 이루는 깊숙한 푸른 눈은 항상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천성이 낙천적이기 때문에 잘 웃었고, 웃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춤을 추는 듯 움직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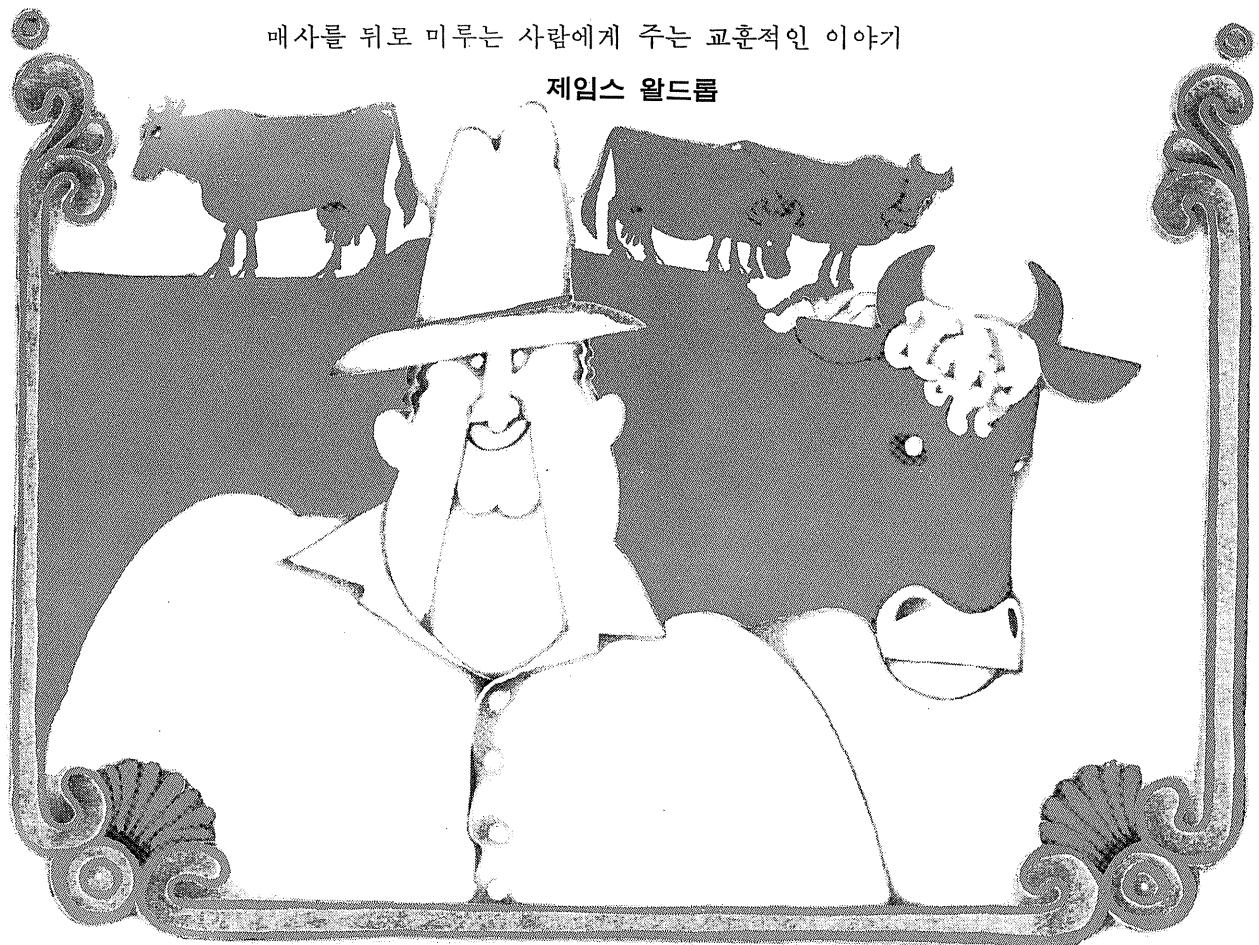
어느 면으로 보나 프랭크 호킨스는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낙농사업은 번창하였고, 그는 훌륭한

언젠가 완성될 왕국

(현대의 우화)

매사를 뒤로 미루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적인 이야기

제임스 월드롭



생산 시장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일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가 교회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로 볼 때 프랭크의 의도는 모두가 좋으나 그는 자기가 속한 교회에 대한 의무에 관심이 없고 게을렀으며, 스스로도 좀 잘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이상한 꿈을 꾸기 일주일 전에 감독은 그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일을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에 자기의 농장 울타리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와드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도 간절했고 실제로 다음 주에는 건축 일을 도울 계획까지도 세웠으나 감독은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프랭크에게 어떤 일을 위임할 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듯 미루는 그의 습관은 신권의 승진에도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는 50년간 수련 장로로 지내왔습니다. 그는 몇년 동안 신권 승진을 자연시킨 자신의 습성을 고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해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몇년 전만해도 프랭크는 십일조를 내려고 결심했으나 아직까지도 이런 일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아내인 마사에게 세 자녀를 신전에 데리고 가서 인봉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프랭크가 가족의 기록을 한데 모으고 그들을 위해 신전 사업을 하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 계획을 시작했고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되었으나 곧 다른 사업이나 활동으로 인해 중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실천력이 없는 생활이 그가 이상한 꿈을 꾸었던 어느 일요일까지 가셨던 그의 생활 태도였습니다.

프랭크는 그날 참으로 오랜만에 주일학교에 참석했으며, 그의 친구인 찰스롱 형제가 가르친 공과에서 무엇인가 느끼는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아내인 마사가 이웃집에 놀러간 사이에 그는 즐겨 앉는 의자에 앉아 물론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의 구절을 생각하다가 그만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룬대로 너가 많은 증거를 가졌음에 너희의 회개를 마지막까지 미루지 앓기를 바라노라. 영생을 준비시킬 목적으로 주어진 이 생이지나며, 보라 우리가 생을 누릴 동안 시간을 활용하

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의 어둠이 다가 오느니라.

“너희가 긴박한 위기에 처하고 난 뒤에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할 수 없으리라. 참으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리니, 이 생애에서 너희 육신을 다스린 그 영이 영원한 세상에서도 너희 몸을 다스리리라.”(앨마서 34:33~34)

프랭크의 꿈은 조용하거나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생이 끝나고 저 세상으로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안내자의 인도를 받으며 미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안내자는 흰 수염이 길게 나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랭크는 이 사람의 눈 가에는 슬픈 표정이 서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실망에 찬 것인지 슬픔에 찬 것인지 프랭크는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들이 가게 될 왕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으나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프랭크가 들어가게 될 왕국에 까지 다 왔는데 그곳의 아름다움은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은 그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으로 금은 보화로 장식된 곳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문앞에 서서 주춤거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처음의 황홀경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았을 때 그는 문의 빗장이 부러져 있고 문이 몹시 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안내인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으며, 이 문이 곧 수리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왕국의 문을 들어 선 다음 다시 프랭크는 전에는 본 기억이 없이 정교하게 장식된 지역을 통과하였습니다. 금박으로 칠한 벽을 보면서 그는 몇 군데는 그래도 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그는 안내인에게 질문을 했고 안내인은 언젠가는 깨끗이 칠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프랭크가 물려 받을 왕국에 있는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쁨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지장에 사는 어느 왕도 그처럼 우아한 곳에서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집안으로 들어 갔을 때 아름다움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 방에는 천장도 없는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안내인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확



신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지붕과 천장을 만들겠지요.”

바로 그때 프랭크의 아저씨인 톰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서로 열싸안고 인사를 나눈 후 프랭크는 그에게 지붕을 올리는 데 도와 줄 수 있겠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아저씨는 도와 주겠다고 제의를 했으나 한참 후에야 가능하지 지금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프랭크는 이 대답을 듣고 오랫동안 비가 오지 말아야 할텐데 하고 걱정했습니다.

톰 아저씨는 자기는 이 왕국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하고 단지 방문을 하려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곧 그가 자기의 왕국으로 떠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면서 프랭크는 자리에 누워서 쉬려고 했습니다. 침대에 다가 가다가 그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침대는 모두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는 침구가 없었습니다. 방을 둘러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볼려 보았지만 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장차 침구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프랭크는 침구 때문에 화가 났지만 여러 가지 부족되는 것들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날카로와진 신경을 달래기 위해서 금으로 만들어진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 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일로 프랭크는 몹시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잠시 생각한 후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무얼 좀 먹도록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 가면서 그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모든 의자가 마치 임금이나 앉는 육좌와 같이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완전한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음식을 주문하고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날라주는 하인은 그의 주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기는 음식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음식을 들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답니다.”라고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프랭크는 좀처럼 분을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가 잔뜩 나서 문 앞으로 성큼 성큼 걸어가 문지기에게 소리치며 자기는 이와 같이 계으로 불완전한 왕국에 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지이는 조용히 그의 책을 뒤지더니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는 불만을 표시하면서 왜 내가 이곳에 오기로 되었는데 준비를 갖추어 놓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프랭크 형제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오. 우리는 그대가 지상에서 행한 모든 사항을 기록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소. 당신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도 없었오. 당신은 지상에 있는 동안 모든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신은 언젠가 훗날에 왕국을 물려 받게 될거요. 만일 당신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소. 우리는 마음대로 왕국을 전설할 수 없소. 당신이 청사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대신 할 수는 없읍니다. 우리는 여기서 청사진을 만들 수 없으며 당신을 우리에게 보낸 사람만을 따를 뿐입니다.”

프랭크 호긴스는 더운 날도 아닌데 땀에 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사가 집에 돌아 왔을 때 그녀는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모두 프랭크가 달라졌다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는 약속한 모든 일을 정확히 이행하였으며 교회에서도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십일조도 지불하고 계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신전에 데려 갔고 인봉했습니다.

얼마 후에 프랭크는 감독으로 성임되었습니다. 그가 감독으로 발휘한 특성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생애에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격려와 권고로 써 급히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瞑

온백성이 알리는 우리의 증언。

하트만 렉토 이세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형 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 안에서 한데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바로 그 때문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중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은 다 그를 통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대한 예언자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 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니이 25:26)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로 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가 육신을 지니시고 지상에 계셨던 절정의 시대에 그는 당신이 알고 계셨던 거룩한 사람들 즉 사도나 예

언자들을 택하여서 이들로 기초를 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인류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했고 성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상에서 영원히 있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아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이니라.”(마 20:28)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거할 하늘로부터 자신과 대화를 나눌 지상의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대화를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 성임이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초기에 그는 열 두명의 특별한 증인을 택하였고 육신을 지니고 계시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 그는 계시를 통해 지상에 있는 동안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사람 중의 하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잠시 동안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관장했고 문제를 처리했으며 질서를

확립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은 사도들의 영적인 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다시 마음을 고쳐 그리스도의 품안에 돌아 오도록 많은 호소의 편지를 띄웠습니다. 박해가 더욱 심해졌고 예언자였던 사도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계시의 빛도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세계사에서도 이때를 암흑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사도나 예언자의 말씀처럼 새로운 날이 밝아 왔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에 새로운 예언자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람은 바로 열 다섯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 스미스 이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820년에 위대한 시현으로써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으며 계명을 주셨고, 다른 사람에게도 계명을 주셔서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고, 예언자들이 한 다음과 같은 말들이 성취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이 나아와 능력 있



고 강한 자를 쳐부술 것이요 이로써 사람이 자기 이웃을 훈계하지 아니하며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며

“또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며,

“신앙이 땅에 증가하게 하며
“나의 영원한 성약이 이루어지게 하며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전파되며 왕과 통치자 앞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였더라”(교리와 성약 1 : 19~23)

우리는 어찌한 단체나 사람이나 조직에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를 비방하는 소책자나 선전용 책자를 만들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깎아 내리려고 하지 않으며 그들의 신앙을 오히려 증진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신앙을 통한 자비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신교의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에 관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것을 믿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단지 믿음이외에도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의식이 있고, 여러분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권능이 있고 행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의견을 나누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함께 나눕시다.”

이러한 것은 구세주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구세주가 자신의 종교를 저주하고 멸망시키려 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울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이로라”(마 5 : 17)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으므로써 다른 사람의 종교 행위를 비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마 23 : 23) 그러므로 우리도 신교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성찬 의식을 통한 자비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카톨릭 신자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

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의 의식이나 성찬을 중요시하는 여러분의 입장 이해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 : 5)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권능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침례는 구원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나 단지 복음 의식 이외에도 구원에 필요한 요인들이 많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할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해야 할 사업이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행할 수 있고 살아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며 반드시 여러분이 지녀야 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눕시다. 우리는 여러분이 진실하다고 믿는 것에서 아무 것도 빼앗으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에 더하여, 이러한 것들을 강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희생만이 인간에게 진리를 알게 해 줍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여러 종파 가운데서 가



장 좋은 점만을 고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읍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이 당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원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특히 히브리인과 유대인들을 다스리신 기록인 성경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밝힐 수 있읍니다. 만일 1830년대에 (우리 교회가 조직된 때) 세상에 있던 모든 경전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가정한다 해도 그것은 오늘날과 똑같은 책으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구세주께서 결정의 때에 “말일성도”라고 하셔서 조직하신 교회와는 좀 다른 점이 있읍니다. 이러한 교회 조직의 원리는 경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현대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로써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도처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전할 훌륭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산에서 나 모든 높은 곳에서나 또 만나기로 허락될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라.

“나는 나를 신뢰하며 욕하는 자를

욕하지 말고 지극히 겸손하게 전파하라.

“교리(신비에 관한 교리)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회개와 구세주를 믿는 신앙과 침례에 의한 죄 사함과 불곧 성신에 의한 죄 사함을 선포하라.” (교성 19: 29~31)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써 회복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웃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돈을 써 가면서 봉사하는 15,000명의 복음을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들이 나아갈 것이며 막을 자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 이는 나 주가 저들에게 명하였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1: 5)

그는 또 다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깨뚫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 (교성 1: 2)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며,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며, 예수는 구세주이며 살아 계

시다는 것을 세상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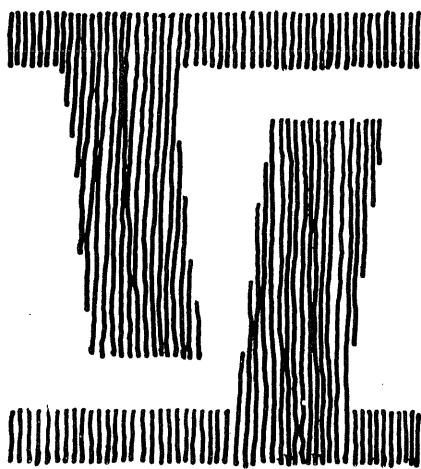
그는 오늘날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의 교회를 지상에 다시 세우셨읍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한 중인을 다시 부르셨고 성임하셨으며 진리의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에 보내셨고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려는 사람들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랑과 친절을 후회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를 주셨으며, 예언자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읍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사랑과 축복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을 남기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이상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



초

후의 만찬이 거행되었던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훌륭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그가 가르치신 많은 내용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



워하지도 말라”(요 14 : 27)

그리고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 : 33)

평안이란 오늘날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잡지나 그외에도 사방에서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인간은 평안을 얻기 위하여 세상 도처를 분주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대적인 형태의 인사치례로 보나 이것은 인류와 그 역사를 같이 합니다.

성경 시대의 백성들은 항상 서로 만나면 “평안하시길 빕니다.”라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어느 곳에서는 끊임없는 지배와 속박과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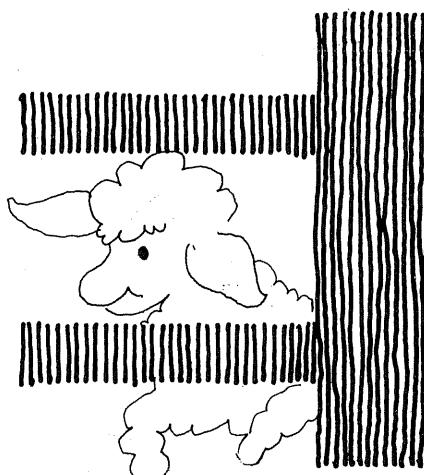
엘드레드 지 스미스 장로
교회 측복사

의 시대에도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밑에 있었습니다.

자연히 유대인들은 “구세주”가 오시기를 기대하였으며 그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속박으로부터 해방해 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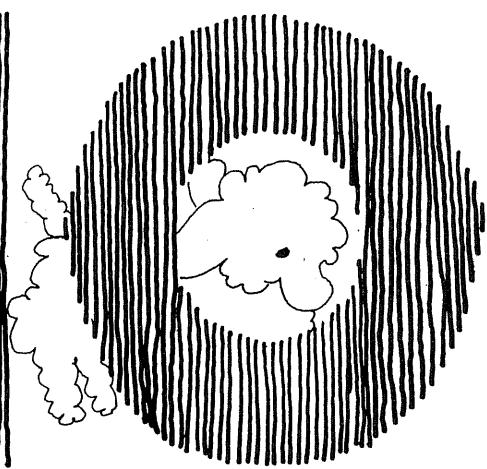
그러나 아직도 거룩한 땅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에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도로에는 맹크와 무기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국경 근처에서는 군인들의 삼엄한 경계 태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 이외의 세상에도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상 수훈에서 그리스도는 평안을 가르쳐 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 : 9)

예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 : 27)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평안이란 어떤 종류의 평안을 뜻하셨겠습니까? 나는 그가 스스로 보이신 행동이 그 말씀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은 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 제사장들과 바리새 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파 혜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

유신으로 안정하고 안정에서 통일하자.

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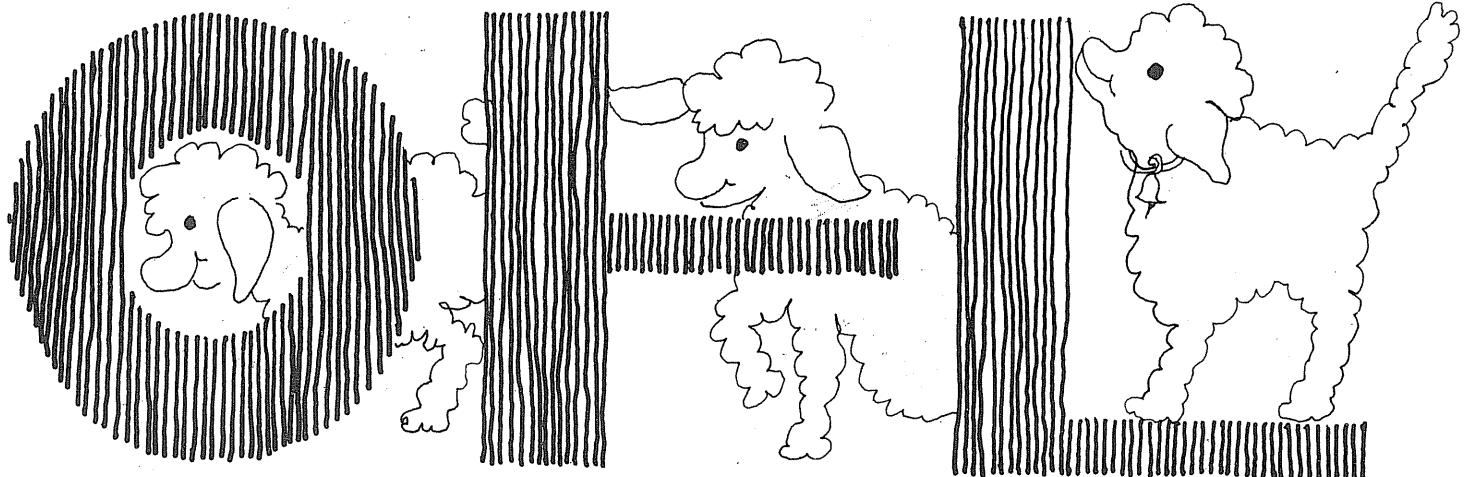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요한복음 18:1~8)

여러분은 그토록 침착하고 평안함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 대신 평안을 창조해 주거나 가져다 주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에드나 세인트 빙센트 밀레이¹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세상에 화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화평을 갖지 못한 사람이 이웃과 화평을

리의 균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느낌을 바꿀 수 있는 축복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읍니까? 그것은 불친절한 말이나 사려없는 행위나 혹은 그보다 더한 어떤 일에서 기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는 마음의 평안을 기대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친구나



을 지닌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읍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오는 사람에게 “자 나를 잡아 가고 이 사람들을 가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빌라도 앞에 가서 심문을 받았을 때에도 빌라도는 아무런 화를 낼 수 없었읍니다. 조용한 가운데 예수는 그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빌라도 역시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하신 다음 그의 제자들에게 준 그의 첫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요 20:21)라는 말씀이었읍니다.

우리는 세세도록 평안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하고 마는 테

누릴 수는 없읍니다.”(“한밤의 대화”, 선정 시집, 하퍼 앤드 로우사, 판권 1937, 1964년)

여러분께서는 이웃의 잔디를 깍아 주거나 바닥에 깔린 낙엽을 긁어 줌으로써 마음속에 평안을 느껴보신 적이 있읍니까? 이웃 사람이 추수하는 것을 도와 줌으로써 평안을 느끼신 적이 있읍니까? 이웃집 대문 앞에 쌓인 눈을 치워 주어서 평안함을 느끼신 적은 없었읍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새 출발을 시도하게 해 줌으로써 평안을 느낀 때는 없었읍니까? 여러분께서는 슬픈 사람을 즐겁게 해 준 적이 있읍니까?

죄책감에 빠져본 적이 있읍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갈등이나 혼란을 경험해 보셨읍니까? 그러한 것들은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부조

이웃이나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라도 친절하지 못하거나 언짢은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주일학교에서 공파를 가르치고 끝날 때는 반원에게 새로운 인생의 일면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의 원리를 가르쳤다고 느끼신 적이 있읍니까? 그 후에 여러분이 느낀 평안과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 들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하신 적이 있읍니까? 그것이 바로 선교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1. 밀레이, 에드나 세인트(빈센트 1892~1950) : 미국 여류시인.

월포드 우드럽 신앙과 열정의 인간

레온 아아르 하트손

월포드 우드럽은 성령의 지시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교회의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위대한 열정과 신앙을 보인 훌륭한 모범인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교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때에 교회를 이끌어 가야 했기 때문에 남달리 강연해야 했고 주님께 의지해야 했습니다.

월포드 우드럽은 일찍부터 주님의 권능을 마음 속 깊이 믿어 왔습니다. 자신의 기록에 의한다면 그는 많은 고초와 역경을 지나 왔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겨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 살 때 끓는 물이 담친 낭비에 빠진 적이 있었답니다. 그는 아버지의 창고의 대들보에 올라 갔다가 거꾸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양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는 황소의 뿔에 바칠 뻔 하였으나 겨우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차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황소의 뒷발로 배를 채운 적이 있었습니다. 건초를 잔뜩 실은 마차가 전복하는 바람에 건초 더미 속에 파묻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말이 끄는 전복된

마차에 타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15피트 높이의 나무에서 등을 대고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30피트 깊이의 강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 구출되었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 추위를 피하려고 오목히 흙이 파진 사파 나무로 지친 몸을 이끌고 기어가다가 행인의 눈에 띄어 동사직전에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하다가 왼쪽 발등이 도끼에 찌힌 적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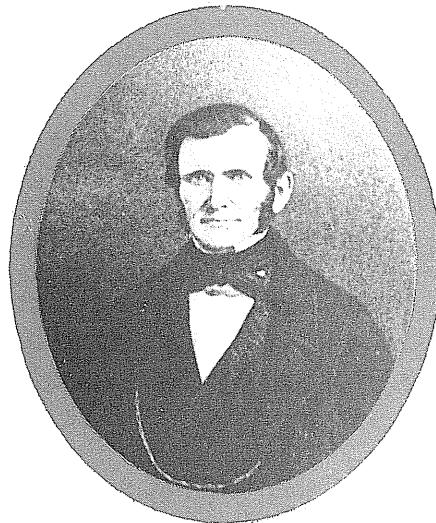
그는 공수병에 걸린 개에게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달아나는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고 양쪽 관절이 상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그가 20세가 되기 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후에도 그는 물레방아 꽈대기에서 두 번이나 떨어져서 위험 직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두 번이나 그는 놀라 달아나는 말에 질질 끌려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인해 그의 가슴에 겨냥하고 당겨진 총이 불발로 인해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떨어져서 가슴을 치는 바람에 가슴뼈와 갈비뼈 세개

가 부러지고 왼쪽 경쟁이와 둔부와 팔에 심한 상처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일찍부터 주님의 권능이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고 믿게 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후일에 이러한 일들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까지 이 땅 위에 살게 된 것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는데, 이는 주님께서는 내가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나를 위해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사려 깊은 젊은이였던 그는 항상 옳은 일을 하고자 노력했답니다. 그는 십대의 어린 시절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지금 나와 같은 연령은 모든 사람의 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는, 일 반적으로 말해서, 이 기간 동안 영원토록 지속될 성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러한 초년기를 보내는데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나는 영광과 영생으로 이끄는 길을 가도록 보살핌과 분별력과 세심한 주의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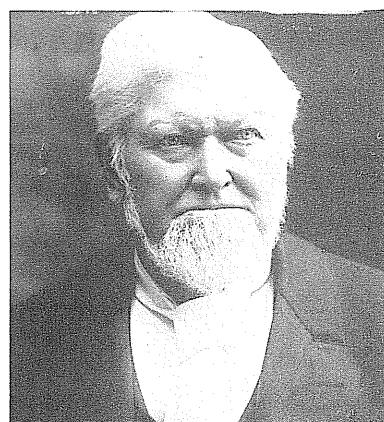
껍니다.”

그는 항상 기도로써 주님의 인도를 구했고 마침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받아 들일 자세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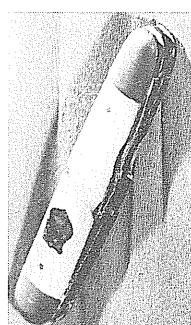
그 복음을 전해 들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읍니다. “펼시 꾀 장로가 기도로써 시작했읍니다. 그는 무릎을 끌고 앉아서 그가 원하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구하였읍니다. 그의 기도하는 태도나 그 기도에서 보여진 영향력

에 나는 크게 감동을 받았읍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며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었읍니다. 찬송을 한 다음 그는 사람들에게 약 한 시간 반 정도 복음을 가르쳤읍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며, 그는 몰몬경의 진실함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사명을 간증했읍니다. 나는 그가 말한 모든 것을 다 믿었읍니다. 성령이 그러한 것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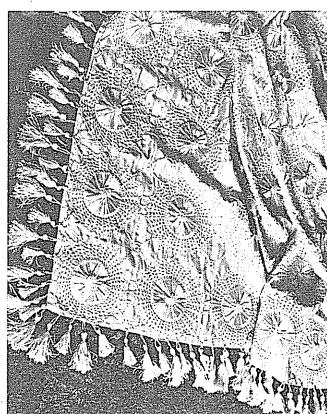
“그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대관장의 주머니칼



우드 럽 대관장의 위대한 영적인 통찰력은 이 초상화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대관장의 저택에서 사용된 아름답게 짜신 테이블보.

SALT LAKE TEMPLE DEDICATION SERVICES.

• • • ADMIT • ONE • •

Thursday, April 6th, 1893.
MORNING SESSION.



우드 럽 대관장은 1893년에 쓸트 레이크 신전을 현급하였다. 이것은 그가 서명한 특별 초청장이다.



대관장의 면도용 잔



우드 럽 대관장이 90회 생신 기념으로 받은 금박 지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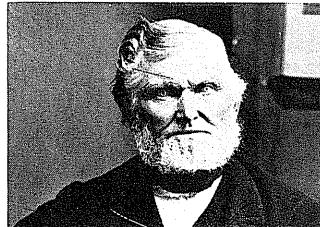
자신이 들은 바에 대해 찬반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영은 내가 이들 장로들로부터 들은 메시지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들에 반대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들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날 밤 예수의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자리에 앉자 동생 아즈몬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비슷한 간증을

커틀랜드에서 그는 다른 새로운 개종자들과 함께 시온의 진영으로 행군해 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교회사의 중대 사건들을 기록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후일에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악마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나의 생명을 노려왔습니다. 나는 적의 표적물이 되어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의 이유를 한 가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악마는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 가

게 된다면 교회의 역사를 쓰게 될 것이고 예언자나 사도나 장로의 사업이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으로부터 들은 모든 설교나 가르침을 빠짐없이 기록하였으며, 나의 일기에는 브리검 영 대판장의 여러 가지 설교문과 올손 하이드, 팔리 피프랫 등의 설교문을 기록하였습니다. 초기에 내가 그러한 기록을 하도록 부름받은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 기록을 담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역사가들이 배도를 하였고 일지를 가지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었읍

사도 시절의 모습



광야를 횡단할 때 그가 사용하던 화젓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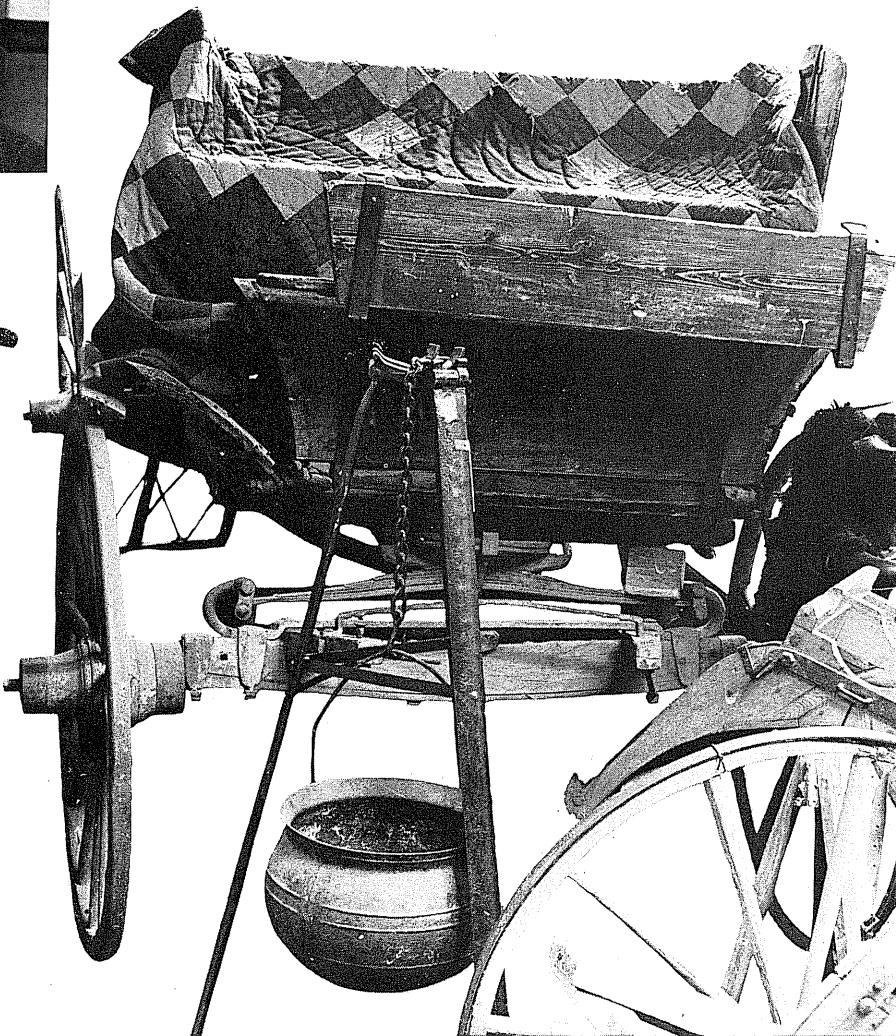


하였습니다. 그를 이어서 몇 명이 더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지 삼일만에 물론경을 세밀히 검토하고 그는 1833년 12월 31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때의 상황을 적었습니다. “눈

이 삼 퍼트 정도 쌓였고 날씨는몹시 추웠으며 물은 얼음과 눈으로 섞여 있었지만 나는 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곧 그는 커틀랜드로 갔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만났습니다.



니다.”

젊은 윌포드가 시온의 진영에 오자마자 그는 곧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아칸사스, 테네시, 카나다, 뉴잉글랜드 등지에서 선교 사업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차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임지에서 떠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뉴잉글랜드와 카나다에서 2년 반 동안 있은 후 나는 성도들을 이끌고 마사추우세츠주의 보스톤에서 약 백 마일 떨어진 곳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들은 땅거미가 질 무렵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으며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막 떠날 차비를 갖춘 기선을 보았습니다. 나는 곧 선장에게 달려가서 몇명이나 승선했는가를 물었습니다. ‘삼백 오십 명’이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백 명만 더 태울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이죠’ 하며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때 주님의 영은 ‘그 배에 타지 말라. 너나 동료들 중 아무도 타지 않도록 하라’고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며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용하고 작은 음성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기선에 타지 않았으며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기선이 떠난지 30분만에 기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해안까지 오지 못한 채 깁깝한 밤에 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나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윌포드 우드 럽의 마차는 대로 횡단시 알고 누워있던 브리검 영이 일어나서 “이곳이 우리가 살 땅이다!”라는 말을 남긴 역사적인 유물이다.

“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성령의 지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팔 소리도 아니며 천둥이나 번개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작게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서른 두 살이 되면 1839년에 미조리주 파웨스트에서 사도로 성임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의 회원들은 그를 위대한 선교사로 보았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는 “그가 교회 내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을 개종시킨 사람”이라고 그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두 곳에서 선교 사업을 했지만 1839년에 다시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른 세 번째 맞는 생일날 윌포드 우드 럽은 영국의 핸리라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복음 사업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지시를 주셨으므로 그는 매우 놀랐으나, 그는 지시대로 버밍엄 외곽 존 벤바우 농장으로 갔습니다. 유ナイ티드 브레드런이라고 알려진 일단의 구룹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올 주님의 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구룹 가운데서 그는 45명의 목사와 160명의 신자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사를 체포하라는 명을 받들고 찾아온 경찰이 우드 럽 장로의 설교를 듣고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모임을 살피기 위해서 밀사로 보내진 두명의 영국 교회 지방 책임자가 그의 손으로 침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윌포드 우드 럽은 1840년 한해에 336명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부름에 따라 그와 다른 형제들은 수많은 개종자들을 데

리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이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그는 나부에서 신전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성도들을 톡剔 산으로 이동시키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신앙심과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통해 위대한 영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영적인 경험은 윌포드 우드 럽이 하나님 아버지와 열마나 가까웠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임무는 계시의 영의 지시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나는 전과 같은 조용하고 작은 음성에 의해서 폭스섬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커틀랜드에 있던 대 배도의 기간 중에도 주님의 영은 ‘동반자를 데리고 폭스섬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나는 폭스섬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곳에 갔고 백여 명을 개종시켰습니다……”

한 번은 심한 풍랑을 만나 “장님처럼 더듬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밝은 빛이 우리 주위를 비추어 주었으며, 우리가 낭떠러지의 벼랑에 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 걸 때까지 빛이 계속 비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쁨을 찾고 돌아 갔는데, 다시 암흑이 내려 덮히고 비가 내렸습니다.”

언젠가는 마차를 세워두고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는데 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일어나서 마차를 움직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회오리바람에 뽑힌 큰 나무가 그의 마차가 서 있던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선교사로 런던에 있을 때 그는 사탄에 관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덤벼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월포드 우드럽의 생애

3월 1일	나이	생애
1807	-	코 넥티커트주 화밀튼에서 출생
1821	14	방아간에서 일함
1833	26	침례 받음
1834-36	27-29	남부 어려주에서 선교사업을 했
1837-38	30-31	동부 어려주와 콜롬비아에서 선교사업을 했
1839	32	사도로 성임
1839-41	32-34	영국에서 선교사업을 했
1842	35	타임즈 앤드 씨 존스, 관리자.
1844-46	37-39	구라파 선교부장으로 봉사함
1848-50	41-43	동부 어려주를 관찰함
1856	49	교회 의사 편찬위원회로 부름받음
1877	70	세인트 죄오지 신전장을 지님
1879	72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파함
1887	80	실이사도 청원회 회장으로 교회의 지도자기 됨
1888	81	비공개 의식을 통해 멘타이 신전을 현급함.
1889	82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됨
1890	83	복수 결혼금지 선언문 발표
1893	86	쓸트 레이크 신전 현급
1896	89	금식일이 매월 첫 목요일에서 첫 일요일로 바뀜
9월 2일		
1898	91	샌프란시스코에서 서거

나는 심한 상처를 받았지만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흰옷을 입은 사람 세명이 나를 찾아 왔으며, 나는 즉시 모든 상처가 나았고 고통을 잊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인트 죄오지를 떠나기 이 주일 전에 죽은 자의 영이 나에게 나타나 왜 우리들이 그들을 구하지 않는가를 물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당신네들이 마음 놓고 살도록 정부의 기초를 다 놓은 사람으로, 우리는 국가를 배신한 적이 결코 없어. 우리는 항상 성실했고 하나님께 전실했다오.’ 이들은 미국 독립 선언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은 이틀을 주야로 나를 보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

나는 곧 바로 침례반에 갔고 맥알리스터 형제를 찾아가서 이들 서명자를 위해 나를 대신 침례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기타 저명한 50여명까지도 합쳐 모두 백여 명을 침례했습니다……”

월포드 우드럽은 시간과 정력을 결코 낭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관장 재직시에도 그는 남서부에 있는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들 인디안을 무척 사랑하고 아꼈으며, 그 당시 그의 나이가 철십 이세였지만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사냥하고 낚시질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위대한 선교사요 하나님의 사자는 야외 활동을 대단히 즐겼습니다. 그는 미 서부 지역에서 인공 낚시 미끼를 최초로 실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합당하게 성도들을 이끌도록 주님께 성성을 다해 간구하였습니다. 1890년 9월 25일 우드럽 대관장은 복수 결혼금지에 관한 주님의 뜻을 세계 만방에 선언하였습니다.

적의 박해가 줄어든 그의 재직 말년에 솔트 레이크 신전이 현급되었습니다. 유타가 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들이 그들의 지역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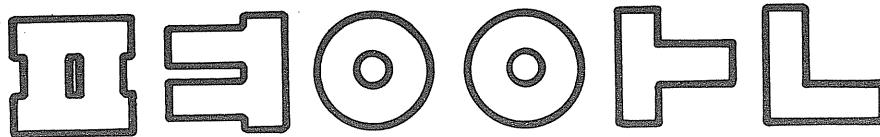
우드럽 대관장은 구십 일세를 일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서거하셨습니다. 그는 이웃과 주님을 동시에 잘 섬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175,000마일 이상을 여행하였고 2,000여명을 침례하였으며 7,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62년에 걸친 교회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선교사, 방아간 주인, 인쇄업자, 농부, 개척자, 식민지 건설자, 정치가, 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 등을 모두 역임했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배울 것을 한 가지만 듣다면 그것은 위대한 신앙에 위대한 열정을 더하면 위대한 경험을 넣는다는 영원한 방정식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놀라운 경험을 받는 것은 물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증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기꺼이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國

성도의 벗 구독 신청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39페이지에서 계속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생활화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신전 사업이나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칠헤를 행함으로써 평안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평안을 얻는 열쇠란 봉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 23:11)

신권을 활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신권의 의무를 이행하실 때 항상 평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평안이란 봉사에서 온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 1:39)

그러한 것이 바로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질투, 탐욕, 이기심을 버려야 하며, 우리의 모든 노력은 타인에 대한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교성 59:23)

요셉 스미스는 환한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잊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체포되어 서른

일곱 번씩이나 석방되었지만 그는 이번만은 다시 돌아 오지 못할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부에서 카테지로 가는 길에서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도살장에 풀려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를 아침처럼 고요하도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털끝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 나는 죄 없이 죽임을 당하려니와 세상 사람들은 저는 잔인한 자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말하리라.”(교회 정사, 6권, 630페이지)

카테지 감옥에서 요셉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엠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정당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운명에 맡기고 싶소. 아이들과 나에 대해 걱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시오. ……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길 빌면서.”(교회 정사, 6권 605페이지)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이 32:17)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활을 뜻합니다.

최근에 성지를 순례하는 동안 우리의 안내를 맡았던 회합 정교를 믿는 요르단 사리 라바디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짧은 아라비아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바노, 샤로, 마레 챈.”이 노래는 “우리는 그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노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에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

다. 이러한 평화를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요 14:27)

만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지니고 있다면 가정 안에는 화평이 깃들 것입니다. 각 가정에 화평이 깃든다면 그 나라에도 화평이 깃들게 됩니다. 국가가 화평하면 세상이 평화롭게 됩니다.

“지상에 평화가 깃들게 합소서”라는 것을 단지 노래로 그치지 말고 우리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구세주께서 다시 올 때 그는 우리가 질투와 불의를 제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라는 가르침을 열마나 받아 들이고 따랐는가에 따라 화평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계 14:6) 요한이 본 천사는 이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지상에서 확립되었으며 결코 다시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왕국은 이미 지상에 서 있으며 그의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히 오실 것이며 지상에 화평을 안겨다 주실 것이나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사람에게만 그러한 화평을 안겨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사업이며 그의 왕국이며 세상을 화평과 영원한 평화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상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멘. 瞰

